



# 김주열



## 4·19 혁명의 불길을 올리다

발행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행인 | 박형규 발행일 | 2003년 12월 29일

주소 |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 34-5 정동배재빌딩 B동 3층

전화 | 02·3709·7500 팩스 | 02·3709·7516 | <http://www.kdemocracy.or.kr>

유통 | 도서출판 오름 전화 | 585·9122~3 팩스 | 584·7952

글 | 전성태 디자인 | AND

## 약력



1944. 10. 7 전남 남원군 금지면 응정리(현 남원시 금지면 금정리)에서 아버지 김재계(金在桂)와 어머니 권찬주(權燦珠)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950. 2.(7세) 응정국민학교(현 금지동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1956. 2.(13세) 응정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금지중학교에 입학하였다.
1959. 2.(16세) 금지중학교를 졸업하고 남원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나 한 학기 만에 그만두었다.
1960. 1.(17세) 연초에 서울 현지동에 머물며 YMCA 고교입시학원 영어반에 다녔다.
3. 10 경남 마산상업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보기 위해 마산시로 갔다.
3. 15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형 김광열(金光烈)과 함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산 1차 의거에 참가하였다가 이날 밤 8시~10시 사이 시청 부근 남전(南電) 마산지점 앞에서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다. 경비주임 박종표 등 경찰이 시신을 월남동 마산세관 앞 바다에 유기하였다.

3. 16 그의 형이 마산상고 합격증을 대신 찾았다.
4. 11 실종 27일 만에 마산시 신포동 중앙부두 앞 바다에서 최루탄이 눈에 박힌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시체의 발견으로 마산 2차 의거가 촉발하고 혁명의 불길이 전국으로 번져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4. 14 고향 우비산(牛鼻山)에 묻혔다.
4. 26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자유당 독재정권이 막을 내렸다.
1995. 4. 11 모교 마산상업고등학교에서 명예졸업장을 추서하였다.

## 발간사

칠혹의 어둠을 가르며 시대를 밝힌 불꽃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주주의를 외쳤던 열사들, 폭압에 스러져간 희생자들…….

우리는 그들에게서 억압을 뚫고 솟아오르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힘을 배웠습니다. 민주주의란 투쟁의 산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펼쳐 일어나 외치며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불꽃으로 부활한 이들이 있었기에 민주주의를 향한 씩씩한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열사들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며 자랑입니다. 때문에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몸바친 의인과 열사들의 값진 발자취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를 위해 수많은 민주주의 전령들의 삶과 투쟁과 죽음을 온전히 복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대의 불꽃’ 발간 사업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자산, 그리고 열사들의 삶을 기억 속에서 다시 살려내고 이를 미래를 여는 힘으로 되살려 나갈 것입니다.

2003. 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박형규

## 작가의 말

4·19혁명이 일어나고 43년이 흘렀다.

4·19의 혼으로 기억되는 열일곱 살 소년 김주열, 그가 살아 있다면 내년엔 회갑년을 맞는다. 당시 그는 4·19세대의 막내였다. 이제 그 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원로가 되었으니 세월의 지층이 꽤 깊어졌다.

김주열이 뜨겁게 살다간 시대에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학교에서 선생들은 4·19를 말할 때면 김주열을 내세우곤 했다. 그러나 김주열의 실체는 없었다. 김주열은 아이들이 닿을 길 없는 역사 속의 인물로 격리되어 있었다.

그는 기억의 과잉과 부재 속에 앉아 있었다. 4·19혁명과 관련한 그의 사회역사적 평가는 과잉되어 있었지만 정작 그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짧은 생을 알 길이 없었다. 그 꿈많은 소년이 누구를 열렬히 사랑했는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김주열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았으나 정작 김주열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흐르는 역사는 때로는 이처럼 주인공의 존재를 망실하기도 한다.

그보다 곱절의 나이를 먹고 나는 그의 평전을 쓰며 때늦은 4·19 공부를 했다. 불과 반세기 전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사

회였나 하여 짐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처럼 좋아졌구나 감사하기도 했다.

김주열을 기억하는 동시대인들이 많이 세상을 등져서 취재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생존해 있더라도 기억을 제대로 복원해내는 분이 드물었다. 다들 그에 대한 좋은 기억만 전해주었다. 조그만 단서들을 다 뒤돌 삼아 나는 그에게로 갔다. 놀랍게도 그는 내가 미루어 짐작한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마음 여리고 애늬은이처럼 걱정 많은 아이, 자신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철저해서 때로는 안쓰러운 소년이었다.

어리고 철없는 아이가 우발적으로 역사에 뛰어들었다고 폄하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를 알수록 그 거리에 함께 있었던 많은 김주열들이 나타났다. 4·19혁명은 그런 평범한 아이들이 이루어낸 위대한 역사였다. 아무리 4·19의 책장을 뒤져보고 털어 봐도 그들보다 더 위대하고 비범한 삶은 없었다. 그 거리로 뛰쳐나간 이들은 다들 김주열처럼 나섰다. 그가 아니었더라도 또 누군가 그 최루탄에 희생되었을 것이다.

고향 남원의 사람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도 아픔만은 어제 일처럼 느끼며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산 3·15의거기념사업회의

체계적이고 풍부한 자료들이 평전의 기본이 되었다. 특히 전주에 사는 최무송 옹은 한때 김주열의 고향에서 교편을 잡은 인연으로 삼십여 년을 외롭게 그의 흔적을 찾아 헤맨 감동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보여주었다. 김주열기념관에 귀중한 사료들을 기증하기도 한 그가 보따리를 풀어 보여준 자료들은 그 가치도 소중했지만 왜 이 작업을 해야 하는지 새삼 되새기게 했다. 영자, 경자 두 누이의 동생에 대한 그리움은 필설로 다 풀 수 없을 만큼 애뜻했다. 사진 자료 촬영을 위해 먼 길에 동행해준 소설가 겸 사진작가 김상영 형의 노고도 잊을 수 없다.

필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이 뜻 깊은 분들의 곡절찬 이야기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안타깝다. 단지 김주열과 그의 시대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께 이 평전이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3년 11월

전성태

---

글쓴이 전성태는 전남 고흥 출생으로 1997년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였다. 1994년 <실천문학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하였고 소설집 『매항뽕』을 간행하고 18회 신동엽 창작기금을 받았다.



## 차례 4·19혁명의 불길을 올리다

6 발간사

7 작가의 말

### 1960년 마산의 봄

3 바다에서 떠오른 소년

5 3·15의 밤

6 피맺힌 모정

7 되살아난 항쟁의 불길

### 짧은 생애와 삶

101 부농의 아들로 태어나다

121 청운의 꿈을 품고

135 서울에서 보낸 겨울 한철

### 붉은 봄

147 김주열 시체 유기 전말

157 4·19혁명과 제1공화국의 몰락

167 그리고 그 뒷이야기

### 부록

178 마산 3·15의거 열사들

182 선언문

185 추모시



1960년 마산의 봄  
바다에서 떠오른 소년

1960년 4월 11일, 마산시 신포동 중앙부두에 괴이한 시신 한 구가 조류에 밀려왔다. 부두 제방에서 3미터 남짓 떨어진 지점이었다. 바닷물은 제방 바로 아래까지 차올라 찰싹거렸고 정오에 다다른 햇살로 눈부셨다.

물결을 따라 출렁이는 꺼묵꺼묵한 물체는 시신의 머리가 분명하였다. 부두를 지나던 시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부두가 해안초소병이 가까운 마산경찰서로 전화를 돌렸다.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을 지나고 있었다.

부산일보 허중 기자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그는 마산 주재기자로 이미 여러 차례 실종 소년에 대한 기사를 내보낸 바 있었다. 그는 마침 인근의 외교구락부 다방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부두에서 뛰어난 후배로부터 제보를 받고 경찰의 감시를 피해 달려오는 길이었다.

“지금 중앙부두에 김주열이 틀림없는 시체가 떠올랐습니다. 빨리 가보이소!”

시신은 얼굴에 너털너털한 함석 같은 게 박힌 채 곳곳이 떠 있었다. 보통 익사하거나 물에 던져진 시체는 옆어지거나 드러누운 자세로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 시신은 마치 권투를 하는 자세로 떠올라 있었다. 아마도 얼굴에 박힌 쇠붙이 때문인 듯했다.

쇠붙이가 박힌 얼굴은 물에 불어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다만 둥근 얼굴에 짧은 스포츠머리, 그리고 흰색 셔츠를 확인하고 허 기자는 시신이 김주열임을 직감했다. 그는 한번도 소년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소년의 어머니를 통해 인상착의를 소상하게 들어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기분에 떨며 허 기자는 품속에서 독일제 네티나 A1 사진기를 꺼내들었다. 햇빛은 시신의 뒤편으로 빗겨 내리쬐고 있었다. 흰 구름이 오락가락하며 명도(明度)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물결을 따라 시신의 머리는 수면 위 아래로 들먹거렸다. 허 기자는 구름이 지나가고 시신의 머리 부위가 물결을 타고 수면 위로 바짝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그는 셔터를 눌렀다.

마산경찰서 수사계장 고인준 경감이 검찰청 길영기 검사와 함께 부두에 나타났다. 그들은 사람들을 헤치고 제방 끝으로 다가섰다. 고 계장은 허리를 굽혀 시체를 확인하고 굳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침 조금 떨어진 바다에 거룻배 한 척이 떠 있었다.

“여보이소, 염감님!”

고 계장은 시신을 인양할 요량으로 어부를 불렀다. 거룻배 주인은 육십칠 세의 김경룡이라는 노인으로 인근해에서 홍합잡이를 하는 어부였다.

시신 곁에 배를 갖다댄 김 노인은 시체의 흉측한 물골에 짐짓 고개를 틀었다. 그는 도저히 손으로 시체를 인양할 수 없어서 어구로 싣고 다니는 쇠갈퀴를 들었다. 고 경감은 가마니를 배 위에 깔았다. 배 후미로 끌어올린 시체를 가마니 위로 눕히자 사람들이 거들어 부두



4월 11일 부산일보 허중 기자가 김주열의 시신을 찍은 특종 사진으로, AP통신을 통해 국내외로 타전되었다.

로 올려놓았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주춤 물러나며 일제히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고 경감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신고를 받은 뒤 꼭한 시간이 흐른 12시 30분이었다.

침대로 보이는 시신은 물 속에서보다 훨씬 참혹했다. 오른쪽 눈에는 적동색 금속성 물질이 박혀 있고, 흰 셔츠 옷깃에는 물때가 묻어 있었다. 염색한 검은 군복바지에 군용 허리띠를 매고 있었으며 검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시신을 살펴본 민주당 감찰부의장 이단희는 짧게 탄성을 질렀다. 나흘 전 소년의 어머니는 그를 붙들고 하소연하였다.

“지난 밤 꿈에 우리 주열이가 나타나서 ‘엄마, 엄마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눈을 못 뜨겠어요’ 하는데 어찌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모르니다. 의장님, 우리 아들을 꼭 찾아 주세요.”

어머니의 꿈대로 소년의 눈에 저런 쇠볼이가 박혀 있으니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소년의 가족이 머무르고 있는 장군동의 친척집을 기억해냈고, 주위에서 있는 두 학생을 급히 불렀다.

“무학국민학교 앞에 셋별미장원이라고 아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 가서 어서 어른들을 모시고 오게.”

그 곳까지는 뛰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그는 택시비를 쥐서 보냈다. 그 사이 이씨는 부두 근처의 미창(대한통운) 사무실로 달려가 전화로 민주당 사무실에 보고하였다.

가족을 기다리는 동안 구경꾼은 어느 덧 백 명이 넘게 불어나 있었다. 지난달 15일 데모 이후 실종된 김주열 소년의 미스터리는 마산 시민들에게 뜨거운 화제가 되어 있었다. 남원에서 온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가방을 들고 거의 실성한 사람이 되어 보름 넘게 병원과 화장터, 관공서와 신문사를 헤매고 다니면서 아들을 눈물겹게 찾고 있었다. 그날 데모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다쳐서 이 실종사고에도 경찰이 틀림없이 연루되었으리라고 시민들은 믿고 있었다. 자연히 추측성 소문도 무성하여 경찰이 죽여서 암매장했다, 수장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었다. 열흘 전에는 시청 뒤 연못에 시신이 수장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틀간이나 소방차로 물을 퍼낸 일도 있었다.

머잖아 친척 노파가 달려왔다.

“아이고, 주열아!”

시신을 앞에 두고 주저앉은 노파는 통곡하기 시작했다. 노파는 김주열 어머니의 이모였고, 김주열에게는 외조모 뺄 되는 안영자 씨였다.

“이게 웬일이고? 널 그렇게 애타게 찾던 엄마가 오늘 아침에 집으로 돌아갔데이. 요 꼴을 안 보여줄라고 엄마 가고 없을 때 이래 왔나? 효도하느라고 이래 왔나?”

급기야 안 노파는 혼절하고 말았다.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안 노파의 말대로 김주열의 어머니는 18일 동안이나 아들을 찾아 헤매다가 불과 세 시간 전인 아침 여덟시에 남원으로 돌아가고

없었던 것이다.

“아이고마, 김주열이라카이. 불쌍해서 우짜노?”

“떠도는 말이 다 사실 아이가? 우째 사람을 저래 해놓을 수 있노.”

“아 엄마가 너무 불쌍하게 됐다마.”

시신은 오후 2시 경 마산검찰청 서독룡 지청장과 길영기 검사의 지휘 아래 스리쿼터에 실려 마산도립병원으로 향했다. 마산도립병원은 철로를 지나 시청 맞은편에 있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흩어지지 않은 채 도립병원으로 걸었다.

“죽일 놈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의 눈에 쇠를 박아 죽이다니?”

“오늘밤 시체를 메고 시내를 한 바퀴 두르자.”

시민들은 6년 전 가까운 진해경찰서 능동지서에서 발생한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렸다. 경찰이 절도용의자를 고문하여 죽게 한 후 이를 산에 암매장하였다. 한 검사의 집요한 추적 끝에 3년 만에 그 사실이 적발되어 여론이 발칵 뒤집혔다. 그 기억도 새로울 뿐더러 바다에서 떠오른 소년의 참혹한 시체를 보니 그 잔악성에 치가 떨렸다. 죽이고도 시원치 않아 눈에다가 철판을 박고 바다에 수장했으니 그 소행자가 누구이건 시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도립병원에 스리쿼터가 도착하자 학생과 시민은 물론 3·15 시위 때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삼시간에 모여들었다. 이미 경찰이 병원 정문을 지키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시민들은 울타

리를 넘어뜨리면서 병원으로 진입했다. 김주열은 서둘러 시체 안치실로 옮겨졌다.

이미 병원 뜰에는 검사들도 서너 명이나 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꾸역꾸역 모여드는 사람들로 긴장감이 높아지자 사뭇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당신네들 뭐야? 도대체 경찰들은 뭘 하는 거야?”

잠시 후 이십 명의 경찰 병력이 추가로 투입되었다. 경찰들은 시체 안치실 입구를 막고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다. 전투복 차림에 권총을 찬 병력 인솔자는 눈을 부라리며 군중 앞으로 나섰다.

“모두 나가시오! 도대체 여기서 뭘 하겠다고 모여 있는 거요. 어서 모두 나가란 말이오!”

“너희들이야말로 도대체 누구냐?”

군중 속에서 샷대질과 고함이 터져 나왔다. 기세에 놀려 당황한 병력 인솔자는 금세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제가 경비과장입니다. 이러시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빨리 돌아가 주십시오.”

안치실에서 민주당 감찰부의장 이단희 씨가 나왔다. 그는 민주당 인사들과 의논 끝에 무슨 일이 있어도 김주열의 시체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하고 부두에서 먼저 병원으로 달려와 있었다.

“병력을 빨리 철수하십시오! 지금 성난 시민들을 보고도 사태를 파악 못하겠소? 병력을 철수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오. 무

고한 시민과 학생들이 또 변을 당해야겠소?”

그의 말에 시민들이 동조하고 나섰다. 특히 부상자 어머니들이 발악적으로 대들었다.

“당신들한테 당한 우리가 왜 나가? 경찰들이 나가라!”

“너희들이 철수해!”

검사들은 김외과 김병국 원장과 함께 시체 안치실에서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 시신의 얼굴에 박힌 쇠붙이를 제거하는 수술이었는데 시민들은 이를 핑계로 시체 처리를 대충 끝내려는 검찰의 간계를 간파했다. 수술기구가 진열되고 집도할 채비가 끝나가고 있었다.

“손을 대지 마시오!”

이단희 씨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수술팀을 가로막고 나섰다.

“김 원장, 그 쇠붙이는 포탄인데 폭발하면 큰일납니다. 손을 대지 마시오! 내가 1군 기술장교로 근무해서 잘 압니다.”

이단희 씨의 말에 김 원장이 깜짝 놀라 물리나며 검사들의 얼굴을 살폈다. 기술장교 운운한 그의 말은 거짓이었다. 이씨는 당국의 일방적인 검시를 막기 위해 그렇게 꾸며낸 것이었다. 그는 못을 박듯 덧 붙였다.

“더구나 이 시체는 우리 시민들의 허락 없이 그 누구도 임의로 손을 못 댍니다.”

밖에서도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시체를 시민 앞에 공개하라!”

어느 처녀는 시체를 해부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울부짖었다.

“옳소!”

여기저기서 시민들이 호응했다. 심지어 고등학생 십여 명은 시신을 떠메고 시위를 하겠다고 안치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검사들과 수술팀이 일단 철수했다. 오후 5시 경에는 병원 정문마저 밀려드는 시민들 손에 열리고 말자 경비과장은 전기철 서장에게 시체 공개를 제안했다. 경찰들은 경비를 포기하고 물러났다.

시신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참혹한 시신을 본 한 아주머니가 샷대질을 하며 울부짖었다.

“이놈들아, 해도 너무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신 위로 태극기를 손수 그린 광복천이 덮였고, 꽃다발도 놓였다.

이단희 씨와 민주당 관계자들,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시신을 지켰다. 밖에서는 경찰들을 철수시킨 시민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당국에 의한 일방적인 시신 처리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갔다.

시신을 두고 당국과 시민들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다. 검찰은 시신을 빼돌리려고 갖은 술수를 부렸다. 시청 청소부를 사주해

서 영안실로 들여보낸 일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슬그머니 영안실로 들어서는 청소부를 시민들이 발견하여,

“몰매 맞을 짓 하지 마시오!”

하고 욕박질러 내쫓았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검찰이 친척들을 협박하여 보낸 일이었다. 안 노파와 그의 아들 김합수 씨가 영안실을 찾아와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구해 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국의 속셈을 뻔히 아시면서 그러실 수 있습니까?”

시민 대표들은 즉각 거부하며 설득에 나섰다. 사십대 초반의 김합수 씨는 법원에서 서기로 근무하고 있었다. 실종된 조카를 찾는데 그도 무척 애를 많이 쓴 사람이었는데 이래 저래 상부의 압력에 시달렸는지 그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사정했다.

“시체를 가지고 정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의 말에서 상부의 회유가 어떤 식이었는지 짐작이 갔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단희 씨가 나서서 만류했다.

“조카는 우리 시민들의 혼입니다. 독재정권의 희생물이 된 주열 군을 다시 죽이지 않도록 모두 지켜야지요. 마산시민의 이름으로 그 혼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이단희 씨는 김주열의 어머니였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하니 몹시 안타까웠다. 안 노파가 다시 시신 앞에 꿇어앉아 통곡하였고, 그의

아들 김씨는 이도 저도 못하고 안타깝게 서 있었다.

“남원 가족들한테는 연락을 취하하셨습니까?”

김씨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전화 연락이 되는 곳도 아니고 우리들도 워낙 경황이 없어서……. 아무튼 여러분 별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입장도 헤아려 주십시오.”

김씨는 안 노파를 일으켜 안고 힘없이 시체 안치실을 나갔다.

경찰이 김주열의 눈에 포탄을 박아 죽였다는 소문은 삼시간에 마산 시내 전체로 퍼져나갔다. 소문을 듣고 도립병원으로 와 시신을 확인한 시민들은 이럴 수가 없다며 몸서리치고 더러는 분통을 터뜨렸다. 6시 경 안치실 앞에는 길이 3미터에 너비 50센티의 흰 천에 ‘협잡선거 불법’이라고 붉은 글씨로 쓴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시민들의 분노는 한 달 전처럼 극한점으로 치달고 있었다.

저녁 6시 15분, 마침내 도립병원 앞길에서 시위가 시작되었다.

“살인선거 다시 하자!”

“협잡선거 다시 하자!”

중고교생 3백여 명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구마산 쪽으로 행진하였다. 시신을 떠메고 가두행진을 하겠다던 학생들이 경찰의 저지를 당한 후 거리로 나선 거였다. 마산상고 학생 강주선이 선두에서 서서 구호를 선창했다. 그는 웅변대회에서 늘 우승을 차지하던 학생으로 시민들한테 톱톡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었다. 길가에 선 학생과 시민들이 앞으로 뒤로, 혹은 중간으로 끼어들어 구호를 함께 외쳤다.

“시민 학도 여러분, 전우가를 부릅시다.”

장군이 뒷걸음질을 치며 외쳤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시위대는 전우가가 끝나자 통일행진곡과 애국가를 차례로 불렀다. 군중은 삼시간에 3천 명으로 불어났다. 뒤를 따르는 시민들도 학생들을 따라 구호를 목청껏 외쳤다.

“김주열을 살려내라!”

“살인경찰 잡아내라!”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서 가끔 구호가 뭉쳐지지 않고 흩어졌다. 데모대가 무학국민학교 앞을 지나 자산동 철교 밑에 이르렀을 때 도로를 가득 메운 시위대는 1만 명이 족히 넘어섰다. 신마산과 구마산간 교통은 완전 두절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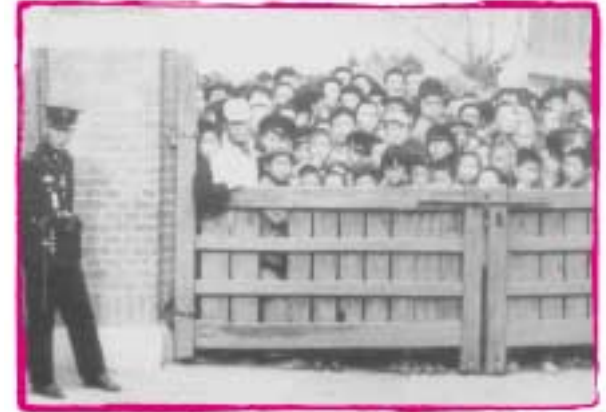
시위대 중 일부는 길가의 불이 켜진 건물을 향해 돌을 던졌다. 또한 3·15의 악몽에서 채 못 깨어난 일부 시민들은 겁에 질려 불을 끄고 문을 잠가버려 도시는 암흑천지로 변하였다.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 일부는 민가의 대문을 두드리며 시민들의 참가를 호소하였다.

시위대가 서울신문 마산지국 앞을 지날 때는 성난 시민들이 간판을 떼어냈다.

“개놈의 자식들 집을 때려 부수자. 가자!”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곧바로 구호와 행동으로 이어졌다. 본대와 별도로 시위대는 동으로 북으로 패가 갈려 산발적으로 흘

시민들은 마산도립병원으로 김주열의 시신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오후 6시 경, 도립병원 앞에서 2차 마산의거가 시작되었다.

어졌다. 일부는 독립병원으로 되돌아와 시체 안치실을 점거하였다.

부산지검에서 허형구 검사가 급파되어 와 있었는데, 그는 독립병원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군중들의 해산을 호소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은 진상규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주열 군의 시체는 법대로 해부하여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니 해산하고 돌아가 주십시오. 거듭 당부 드립니다. 김주열 군의 시체는 한 점 의혹 없이 법대로 조사 처리할 것입니다.”

“우우.”

그러나 군중은 야유만 보낼 뿐 전혀 해산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유가족 김합수 씨와 민주당 마산시당 선전부장이 마이크를 잡고 나섰다.

“저는 김주열의 외삼촌입니다. 이 사태를 당한 우리 유가족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조용하게 조카의 일을 수습하였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유가족의 슬픔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주당 마산시당 선전부장 한정득이옵시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김주열 군의 참혹한 죽음을 시민들의 편에 서서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흥분하여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면, 만일에 또 3·15때와 같은 불미스런 사건이 터지고 만다면 그 비극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충심이

충분히 전달되었으니 이제 해산하시고…….”

“집어 처! 민주당도 겁먹은 거냐?”

유가족 앞에서는 차마 못하고 참은 야유가 시위대에서 터져 나왔다.

“똑바로 해! 3·15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야?”

“김주열을 떠메고 경찰서로 가자!”

“고문경찰관을 끌어내라!”

한편 시위대 본대는 8시 15분 경 남성동파출소 앞에 이르렀다. 이미 경찰들이 도망가고 빈 파출소에 데모대가 돌을 던져 1, 2층 유리창을 깨뜨렸다. 일부는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서류를 내팽개치고 집기를 부수기도 했다.

한편 신마산 쪽으로 향하던 데모대에서는 대중가요 ‘유정천리를 개사한 ‘조병옥 박사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3·15 정·부통령 선거를 두고 전국적으로 유행한 노래였다.

가련다, 떠나련다, 해공선생 뒤를 따라  
장면박사 홀로 두고 조박사도 떠나갔다  
가도가도 끝이 없는 당선길은 몇 굽이나  
자유당에 비가 오네 민주당에 꽃이 피네

세상을 원망하라 자유당을 원망하라  
춘삼월 15일날 조기선거 웬 말인가

천리타국 땅에서 객사죽음 웬 말인가

시름없는 신문 들고 백성들이 울고 있네

이들 데모대는 행진 도중에 시청을 난입해 점거하였다. 이들은 캐비닛을 부수고 공문서를 내동댕이쳤고 투표함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시위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시청 1층 좌측에 있는 세무과에도 몰려 들어가 서류와 기물을 뒤집어 놓았다. 투표용지와 서류가 시청 광장에 하얗게 나부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은 시위대는 신마산 댕거리까지 진출해 시위를 벌이고 경찰서 앞으로 되돌아왔다.

“경찰은 사과하라!”

“악독한 고문경찰관을 잡아 죽이라!”

이 무렵 소방서를 타격하고 밀려온 시위대가 결합하여 경찰서 앞에 모인 데모대는 6천 명을 넘어섰다. 데모대는 경찰서를 완전 포위하고 함성으로 기세를 올렸다. 일부 시민은 경찰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 곤봉과 몽둥이로 경찰서 유리창을 깨부수고 서류를 탈취하였으며 일부는 마당에 대기 중인 트럭 세 대에 돌을 던졌다. 도시는 급격히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었다. 시위 대열이 대여섯 개로 나뉘어 도심 곳곳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 시각 내무부에서는 마산 상황을 보고받고 공포탄을 쏘아 대처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 경찰에 비상대기령을 발동하고 마산시 인근

의 경찰병력을 마산으로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8시 30분쯤, 또 한 패의 시위대가 장군동에 있는 마산시장 관사로 몰려갔다.

“박영두 시장은 물러가라!”

시위대는 관사 내부로 들어가 가재도구를 짓밟았다.

일부는 자유당 마산시당에 뛰어들어 사무실 유리창과 내부시설을 닥치는 대로 파괴했다.

“허윤수 집으로 가자!”

일단의 시위대가 민주당에서 자유당으로 당적을 옮긴 국회의원 허윤수 집으로 가자고 외쳤다. 이내 천 명에 가까운 시위대가 떨어져 나와 해인대학(현 경상대학) 뒷골목으로 치달았다.

“불구대천의 원수 변절자를 처단하라!”

허윤수 의원 집에 당도한 시위대는 지난 3·15 시위 때 일부 파괴된 담과 문짝을 무너뜨렸다. 장독대를 깨부수고 일부는 지붕에 올라가 기왓장을 내동댕이쳤다. 가재도구도 끌어내 부수기도 했다. 집이 완전 축대밭이 되는 데 담배 한 대 피우는 시간보다 짧았다.

허윤수와 같이 변절한 시의원 김성근의 집도 돌 세례를 받았다. 시위대는 마산검찰청과 시청 앞을 거쳐 구마산 본대로 돌아가던 도중 야까 간판을 떼어낸 서울신문 마산지국 앞에 이르러 왜 시민들을 빨갱이로 모느냐고 분개하며 건물을 부수었다.

한편 신마산 쪽 시위대 중 한 패는 허윤수 의원 소유의 동양주정을



급습하였다. 이 시위대에는 허윤수에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50여 명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 이들은 다른 데모대와 합류하여 창원군청을 점거하고 보관 중인 투표함을 모조리 끌어내어 파손하였다. 투표용지를 끌어안고 나와 길거리에 뿌리면서 불법 험잡선거 다시 하자고 목청껏 외치는 시민들도 있었다.

두어 시간에 걸친 시위로 남성동, 신마산, 중앙동, 오동동 파출소와 상남동의 북마산 임시파출소가 파괴되었다. 시청, 창원군청, 경찰서, 소방서, 자유당사, 서울신문지국, 국민회, 형무소 등이 시위대의 난입으로 훼손되거나 투석전으로 파괴되었다. 불빛이 새어나와 데모대의 행동에 지장을 초래한 제일은행 마산지점과 마산일보사도 돌세례를 면치 못했다.

시위대에 속수무책으로 밀린 경찰병력은 경솔한 행동을 삼가하라는 신임 전기철 서장의 명령에 따라 두 시간 동안 최소한의 방어만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열을 재정비하고 역공에 들어갈 채비를 했다. 9시 10분, 경찰은 경찰서에서 시위대를 몰아낼 목적으로 공포탄을 쏘기 시작했다.

수차례 밀고 밀리는 격렬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그 과정에서 학생 네 명이 경찰에 붙잡혀갔다. 이에 격분한 시위대가 경찰서에서 서장의 지프 114호를 우체국 앞 노상으로 끌어내 불을 질러버렸다.

“서장놈을 죽여라!”

더욱 과격해진 시위대는 서장을 향해 돌과 곤봉을 던졌다. 서장은

얼굴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경찰 손에 병원으로 옮겨졌다.

탕, 총성이 울렸다. 9시 30분이었다. 경찰은 150발에 이르는 공포탄과 실탄을 난사하여 시위대를 밀어냈다. 이 발포로 노동자 김영길(19), 마산공고생 강용기(18)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또한 대여섯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어 수류탄으로 추측되는 폭발물이 터져 십여 명이 추가로 부상을 당했다. 시위대는 총알을 피해 골목골목으로 피신했다. 지난 3월 15일 밤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났다. 일부 학생들은 서장이 후송된 병원으로 찾아가 발포 중지를 요구했다.

시위대의 기세는 자지러지는 총성으로 한순간에 꺾이고 말았다. 경찰서에서 밀린 시위대는 구마산 쪽 본대로 합류하기 시작했다. 그 수는 무려 2만을 넘었고, 거리마다 나와 서 있는 시민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5만을 헤아릴 정도였다.

“학살경관 처단하라!”

“이승만 정권 물러가라!”

“이기봉을 죽여라!”

“정·부통령 선거 다시 하라!”

남성동파출소 앞에 모인 시위대의 선두에 김함수 씨의 딸이자 김주열의 친척 누이동생인 김미영이 나서서 울부짖었다.

“오빠의 원수를 갚아 주세요!”

이에 자극받은 시위 군중들이 김주열의 원수를 갚자는 함성으로 화답했다. 10시가 넘으면서 경남도경과 인근 경찰서에서 출발한 지

원 병력이 속속 마산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10시 20분 발포를 중지하였다. 끄무레한 하늘에서 차가운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곳은 밤이 깊어지자 시위대 참여 시민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한편, 경찰서에서 밀려났던 시위대는 자정쯤에 다시 경찰서 앞에 집결하여 연행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에 돌입하였다. 대부분이 고등학생들이었다. 경찰과 시위대는 불과 5미터를 사이에 두고 대치상태에 들어갔다. 밤늦게 부산에서 급파된 최윤국 경남도경 경비과장이 협상안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나왔다.

“여러분이 하는 데모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는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나도 과거 학생시절에 학생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면 연행된 학생을 곧 석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벽 1시 50분, 연행자 네 명이 경찰서에서 풀려 나왔다. 시위대는 차갑고 질척한 길바닥에서 일어나 ‘대한민국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기나긴 11일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1960년 마산의 봄  
3·15의 밤

김주열이 실종된 날은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일이었다.

이날 마산에서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민 항거가 일어났고, 이에 경찰이 발포하여 마산시민 8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날이 그 유명한 3·15의거의 날이다.

남원이 고향인 김주열이 마산에 온 날은 죽기 몇새 전인 3월 10일이었다. 이틀 후에 있을 마산상고 입학시험을 보기 위해 그는 남원에서 마산으로 왔다. 입학원서는 남원고 졸업반인 형 광열이 이미 이틀 전에 마산으로 가지고 가 접수해둔 상태였다.

주열이 마산상고 입학시험에 응시하게 된 것은 이 학교 졸업반인 동네 형 하용웅의 영향이 컸다. 그는 형 광열의 친구였고 당시 서울대에 응시하려 상경했다가 마침 종로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던 주열을 만났다. 뒤에서 더 언급하겠지만 그때 주열은 꽤 심각하게 그와 진학을 상담했다. 당시 김주열은 경쟁률이 치열한 용산의 교통고등학교(철도고등학교의 전신)에 응시했다가 낙방하고 서울 소재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기울어가는 가세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하용웅은 주열에게 자신의 모교인 마산상고 진학을 권하였다.

또한 마산에는 외조모 뺨 되는 안 노파가 살고 있었다. 안 노파는 주열에게 가정교사 자리라도 주선해 주겠다며 마산으로 진학할 것을 권하였다. 안 노파에게는 중학생인 손녀와 초등학교생인 손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주열이 이들을 가르치며 학교에 다니길 원했다.

그러나 마산상고는 이미 원서접수 마감이 하루나 지난 뒤였다. 선배 하용웅이 그의 담임 김필만 선생에게 편지를 써주었다. 하용웅은 학교에서 꽤나 신망을 받는 인재였고 김 선생은 그를 아들처럼 여기던 터라 원서를 접수하는 데 발 벗고 나서 주었다.

입학시험을 치른 주열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며 형과 함께 마산에 머물렀다. 합격자 발표는 당초 14일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정·부통령 선거로 날짜가 이틀이나 미루어졌다. 어쨌든 주열은 아직 마산 시민이라기보다는 이방인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날 하루 그는 자의든 타의든 역사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장군동 외조모 댁은 아침부터 소란스러웠다. 마당에서 외조모 안 노파가 누군가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있었던 것이다.

“백성 눈 개리고 천년만년 다 해묵을 줄 아나?”

광열과 주열 형제는 그 소리에 눈을 떴다. 문을 열어보니 안 노파는 이웃 여자와 대문을 두고 한 죽이 되어서 골목길 어딘가를 향해 악다구니를 퍼붓고 있었다. 투표를 독려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하는 소리 같았다.

“통장이라 카는 사람이 선거꾼 노릇이나 하고 돌아맹긴다카문 그 게 어디 짝수있는 나라가?”

“우리는 이 나라 백성 아니라카이 그러네예.”

안 노파가 한 소리 하면 이웃 여자가 맞장구를 치는 식이었다.

안 노파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주위에서 암암리에 민주당 당원

으로 지목을 받고 있던 터에, 이번 선거에 투표번호표마저 나오지 않았다고 며칠 전부터 몹시 화가 나 있었다. 당시 민주당 마산시당의 조사에 따르면 총 유권자의 20%인 1만 3천 명 정도가 번호표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안 노파와 이웃 여자는 한참을 더 그렇게 서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내 투표 시작 시간인 7시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길게 울렸다.

“니그들도 좋은 나라 구경할라 카문 공부들 열심히 해라마.”

문설주 너머에 앉은 두 형제를 보고 안 노파가 치마를 툭툭 털며 말했다. 두 형제는 마치 자신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지은 것처럼 머쓱해졌다.

사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장기집권 야욕은 극에 달해 있었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장에 피선된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을 지낸 후, 1952년 자유당을 창당하면서 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54년에는 대통령의 3선 금지조항을 고쳐 실질적인 종신 대통령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개헌안을 내놓았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자, 유명한 사사오입 논리를 적용하여 부결을 반복하고 통과시켰다. 1956년 이승만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유세 중에 사망하자 무난히 3선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부통령에는 자유당 후보 이기붕이 낙선하고 야당 후보 장면이 당선되면서 자유당 정권은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유당은 장기 독재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비판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1958년 8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야당과 언론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개정 국가보안법은 1959년 1월 15일자로 발효되었다.

자유당은 지난해 6월 29일 일찌감치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이승만과 이기붕을 정·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민주당에서는 조병옥과 장면이 정·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다. 이미 민심은 폭정을 일삼는 자유당 정권을 떠나 있었다. 설령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의 나이로는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자유당으로서도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이승만의 유고시 권력을 승계할 부통령 후보 이기붕의 당선에 더 매달리는 형국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당 정권은 일년 전부터 노골적으로 부정선거를 준비하여 밀고 나갔다.

공명선거를 관장해야 하는 내무부 장관 최인규가 부정선거 연출의 선봉에 섰다. 장관 취임 석상에서 그는 대놓고 모든 공무원은 선거에서 기필코 자유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폭언을 일삼았다. 이어 전국을 돌면서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끝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이나 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불법선거를 독려하였다. 그는 일선 경찰서장들을 연고지로 배치하는 한편, 충성도가 조금이라도 미흡한 경찰 간부는 한직으로 내쫓거나 퇴직시켜 버렸다. 또한 전국에 걸쳐 '공무원 친목회'를 조직하고 매주 한번씩 회합하도록 하여 득표공작을 점검하였다. 이 부정선거 운동에는 교육 공무원들까지 동원되었다. 교사들이 가정방문을 빙자해 돌아다니며 자

유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야당의원들에 대해서는 집요한 분열 공작이 펼쳐졌다. 심지어 정치깡패를 동원해 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여 여기저기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던 중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자, 자유당 정권은 1960년 5월 중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던 정·부통령 선거를 두 달이나 앞당겨 버렸다. 조병옥 후보는 미국 육국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선거가 한 달 남은 2월 15일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이승만 단일 후보로 당선이 확실해졌고, 이제 남은 문제는 부통령 이기붕의 당선이었다.

내무부가 마련한 부정선거 시나리오는 기상천외하였다.

4할 사전 투표. 그러니까 선거일에 자연 기권하는 표, 금전으로 매수하여 기권하게 한 표, 그리고 선거인 명부에 허위 기재한 유령표 따위를 그 지역 유권자의 4할에 해당하는 몫만큼 미리 표로 만들어 두었다가 투표 시작 전에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 것이었다.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미리 공작한 유권자를 3인조 혹은 5인조로 편성하여 그 조장이 조원들의 기표 상황을 확인한 후 다시 그 투표용지를 자유당 참관인에게 제시하고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완장부대 활용. 자유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자유당' 완장을 착

용시켜 투표소 부근의 분위기를 자유당 일색으로 만들어 야당 성향의 유권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자유당에 투표하게 조장하는 것이었다.

야당 참관인 축출, 민주당 참관인을 매수하여 투표 참관을 포기시키거나 그제 여의치 않을 때는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투표소 밖으로 쫓아내도록 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투표함 수송 도중 교체하기, 개표 과정에서 여당표로 바꿔치기, 모든 투표구에서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85% 이상 나오게 하기 등의 계획도 마련하였다. 이 구체안은 1월에 잇달아 열린 전국 각 시·도 경찰국 사찰과 계장 및 분실장 연석회의에서 시달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경찰 간부를 비롯하여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는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파직한다는 조건으로 사표까지 미리 받아두었다. 이렇듯 철저히 준비한 시나리오는 선거 당일에 그대로 시행되었다.

3·15 이전의 마산 정국에 가장 큰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은 허윤수였다. 1958년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입후보하여 당선한 허윤수의원은 시민들에게 비교적 신뢰를 얻어온 보수적인 정치인이었다. 그는 자유당 창원 을구 국회의원인 이용범으로부터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공천과 당선 보장, 동양주정 경영권을 넘겨받겠다는 약속을 받고 1960년 1월 5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용범은 막대한 재산을 기반으로 자유당 경남도당 위원장까지 지내며 이기붕의 두터

자유당이 획책한 3인조, 5인조 부정선거



제4대 정·부통령 선거 벽보. 자유당 정·부통령 후보 이승만, 이기붕이 출마하였고, 민주당은 조병옥이 서거한 가운데 부통령에 장면이 출마하였다. 조병옥의 사진이 공백으로 남아 있는 민주당 벽보가 눈길을 끈다.

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 이용범은 그 위세를 등에 업고 마산의 경찰 간부와 검찰을 자기 계열 인사로 바꿔 앉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용범의 마산 자택을 ‘오동동 경무대’라고 불렀다.

허윤수 의원은 이후 1월 11일 자유당에 정식 입당하였으며, 3월 4일에는 동양주정을 인수하였다가 경쟁업체인 무학주정에 거액을 받고 매각하였다. 동양주정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지역의 대표적인 부패 정치인이자 기업인인 이용범의 배후조종으로 부산지검 마산지청장 서득룡과 마산세무서장 서복태까지 개입된 정·관·경 유착의 표본이었다. 마산 시민들은 자신들이 찍어준 표를 팔아 동양주정을 삼켰다고 격분하였으며,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허윤수 개인에 대한 증오와 공작정치를 일삼는 자유당에 대한 반감으로 치를 떨고 있었다. 특히 이용범은 선거가 임박하자 경찰조직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준비했다. 그 결과 마산의 선거운동은 다른 지역과 달리 경찰조직 대 시민의 싸움이라는 특이한 양상을 띠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미영이 할매요!”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아까 그 이웃 여자가 다시 마당으로 들어섰다.

“저 아래 동사무소 투표소에서 난리가 났다 캡디더.”

안 노파 가족은 숟가락질을 멈추고 여자를 바라보았다.

“정머시기 있잖아예? 민주당 도의원 정남규라고 그 젊은 사람예. 가가 잡혀갔다 카네.”

“와?”

안 노파가 눈이 뚱그려져서 물었다. 이웃집 여자는 밥상에서 고추장아찌를 하나 집어먹었다.

“저 안사람이…… 잘 익었네예……. 아직 투표도 안 한 투표함 하나를 자빠뜨렸는데 거 안에서 표가 역수로 쏟아졌다 안 캡니꺼. 그래 그 불같은 성미에 가만있었겠어예. 사전 투표 적발했다고 길길이 날뛰다가 그마…….”

이웃 여자는 두 손이 묶여 끌려가는 흉내를 냈다.

“내 그랄 줄 알았다. 내 뭐라 카더노? 이승만이 노망을 안 했시모 이래 할 수 없다 안카더나.”

안 노파는 숟가락을 상 위에 툭 놓았다.

“근데예, 우린 변호표 없다고 이래 가만 있어도 될랑가 몰겠습니더. 사람들이 막 달라들고 난리다 카던데.”

“우야든동 우리도 가자.”

안 노파가 치맛자락을 감으며 뜰로 내려섰다.

“어무이!”

노파의 아들 김합수가 입을 열었다.

“와 어무이가 나섭니꺼? 그냥 계시이쇼.”

안 노파는 엉거주춤 다시 마루에 엉덩이를 걸쳤고, 이웃 여자는 머쓱해서 슬금슬금 자리를 떴다.

점심 무렵 주열은 형 광열과 함께 중성동의 김필만 선생 집을 찾아

나섰다. 미리 시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사실 주열은 장학생으로 합격했는지 그 여부가 무척 궁금했다.

거리로 나서자 민주당 마산시당에서 10시 30분을 기해 선거무효를 선언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시내 47개 투표소에서 민주당 참관인이 들어간 곳은 두세 개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자유당 선거위원들이 야당 찍은 표를 찢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기표해서 투표함에 넣고 있다고도 했다.

“성, 이러다가 뭘 일 나는 거 아니까?”

김주열이 근심과 호기심 그득한 얼굴로 물었다.

“일 좀 나아제.”

“서울 있을 때 고등학생들이 종로까지 몰려와 막 데모하는 거 봤는데 멋지더라.”

“어디 서울뿐이간디?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뭐 전국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시끄럽다. 근디 마산 학생은 조용하단 말여. 그러니까 마산 학생들은 썩었다는 소리를 듣는 거여. 주열이 너 들었냐, 부산 동래고 학생들 두 명이 마산에 들어왔다는 거?”

형 광열이 물었고 주열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산고 학생위원장을 찾아와 마산 학생들은 무얼 하느냐고 막 물어아붙였다면서?”

“그래, 되레 그 학생들을 타일러 보냈다더라.”

“그래도 그저께 마산상고 2학년 선배들이 영어시험 답안지로 뼈라

를 만들어서 백 장이나 뿌렸다던디.”

“나도 들었다. 쫓기해서 자유당을 타도하자고 썼다메? 시내에 격문도 내붙이고.”

“응, 어제 데모가 열리기는 열렸는데 이십 분도 못 가고 끝났다더라니께.”

두 형제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걸었다.

김필만 선생은 마침 부산으로 출타하고 없었다. 두 형제는 마산시내 구경이나 할 심산으로 중앙부두로 걸어 나왔다. 시내가 여러 소문으로 뒤숭숭했다. 투표소 곳곳으로 시민들이 몰려가 항의를 하는데 반공청년단이 몽둥이를 휘둘러 여러 명이 다쳤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점심시간도 지난 무렵이라 주열은 배가 고팠다. 빵집 앞에서 주열이 멈춰섰다.

“성, 우리 빵 사먹을까?”

광열은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남원 돌아갈 차비밖에 안 남았다. 저쪽 돌아가면 풀빵 팔던디 그거나 사서 묵자.”

형제가 풀빵을 사서 나눠먹으면서 중앙부두 시장통을 지날 때였다.

“부정 협잡선거 다시 하라!”

“협잡선거 물리치자!”

“투표할 자유를 달라!”

가까운 어디선가 남학생들의 구호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어지럽게



들렸다. 형제는 길거리로 뛰어나왔다. 학생 십여 명이 구호를 외치며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다. 그 뒤를 경찰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쫓고 있었다. 광열과 주열이 위협을 감지하고 허둥거리는데,

“학생들 어서 피해!”

하고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건어물상 아주머니 하나가 놀란 표정으로 골목을 가리키고 있었다. 두 형제는 도망치는 학생들 틈에 끼어 뛰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달린 그들이 몸을 숨긴 곳은 부두 근처의 어느 가정집이었다. 고등학생 하나도 함께 피신해 있었는데 교복을 보니 창신농고 학생이었다.

그들은 바깥 동정을 살피며 오후 4시까지 그 집에 숨어 있었다. 소란이 잠잠해지자 두 형제는 중앙부두 광장으로 나왔다. 광장 한 편에 쌓인 소나무 더미가 눈에 띄자 두 형제는 그 위에 걸터앉았다. 꽃샘추위를 물린 봄벌이 따사로웠다. 바다는 잔잔했고 갈매기들이 유유히 날고 있었다.

“주열아, 배 안 고프냐?”

“하도 놀래서 그란지 난 잘 몰겠네. 성은 배 많이 고프제?”

“괜찮다. 아까 풀빵도 묵었고……. 그나저나 주열아!”

동생을 부르고 나서 형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난 아무래도 우리 집안 형편상 도저히 대학교에 진학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걱정은 말고 나라도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마쳤으면 좋겠다.”

“아니여. 나보다 성이 진학해야제. 난 걱정 말어. 가정교사라도 해서 독학으로 공부할 생각이니께. 성은 우리 집 기둥이잖어.”

설핏 웃어 보였지만 주열도 결코 표정이 밝지 않았다.

“난 아버지 말대로 보통고시라도 응시해서 직장생활하면서 야간대학이라도 갈 테니께 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부를 해라 양? 우리 집을 다시 일으켜야 쓰지 않겠냐.”

“그나저나 성, 나 장학생 안 됐으면 어짜까?”

“인마, 걱정마. 니 실력이면 충분하다고 용옹이 선생님도 안 그러디.”

“아, 장학생으로 합격했으면 좋겠다.”

주열은 자리에서 일어나 활짝 기지개를 켜다. 어쨌든 그는 새로운 길에 들어선 사람처럼 설레임에 충만해 있었다. 주열의 눈에 바다에 뜬 빈 거룻배 한 척이 보였다. 주열은 지난해 여름, 하용웅 형 친구들과 이랑 어울려 배를 타고 나가서 사진을 찍고 놀던 일을 떠올렸다. 그때만 해도 이곳 마산에서 학교를 다니게 될지 꿈에도 몰랐는데 사람의 일은 참으로 모를 일이었다.

“성, 우리 저 배 타까?”

주열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형 광열은 발끈했다.

“주인 없는 배를 뭘 수로 타냐? 돈도 없고……. 답에 타자.”

해가 기울고 황혼이 짙어질 무렵 형제는 장군동 외조모집으로 돌아왔다. 안 노파는 며느리가 하는 미장원에 내려갔는지 집에 보이지 않았다. 중학교에 다니는 동생 미영은 오늘 낮에 민주당 간부 여섯

명이 경찰에 붙잡혀 갔고 오늘 밤에 큰 데모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동생 미영이 저녁상을 차려서 형제는 저녁을 먹었다.

저녁 7시쯤 되었을까, 장군동 골목골목에서 ‘와! 와!’ 하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지르는 함성이 들려왔다. 두 형제가 잔뜩 긴장하고 마당으로 나섰더니 마침 안 노파가 술에 취해 대문으로 들어섰다.

“드디어 터졌다, 터졌어. 너희들도 나가 보거래!”

안 노파는 시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고 아주 들떠서 말했다.

두 형제가 자산동으로 내려오자 무학국민학교 앞에 1만 명의 데모 대열이 운집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데모대열은 4백 미터 전방의 개표장인 시청으로 향하다가 경찰 저지선에 막힌 듯했다. 경찰은 소방차 여러 대를 동원하여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 쪽에서 간간이 공포탄 소리가 들려왔다.

사태의 긴박성을 감지한 서득룡 지청장과 손석래 경찰서장은 일선 진압대에 실탄을 장전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현장 지휘는 경비주임 박종표 경위가 맡고 있었다. 2층 시청 시장실 테라스에서는 서득룡 지청장, 손석래 서장과 함께 자유당 국회의원 이용범, 허운수, 그리고 39사단장 김희덕과 마산 시장 박영두가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다.

“부정선거 개표를 즉각 중단하고 부정선거 다시 하라!”

“내 표를 내나라!”

“투표함을 박살내자!”

앞 대열이 움직이자 소방차 중 한 대가 전진하며 호스로 세차게 물

을 뿌렸다. 이에 격분한 시위대가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거리에는 돌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돌을 찾는 소리가 요란했다.

“철길에서 자갈을 가져와!”

머잖아 교복을 입은 여학생 수십 명이 속치마를 드러내놓고 스키트 자락에 돌을 담아와 도로 위에 쏟아놓았다. 여기저기서 돌을 집어갔다. 주머니에 돌을 한 움큼씩 쑤셔 넣는 학생도 있었고, 심지어 잠바를 벗어 돌맹이를 수십 개씩 싸 담아 가는 청년도 있었다.

시위대는 삼시간에 시청 40~50미터 앞까지 육박해 들어갔다. 경찰과는 불과 15미터도 안 되는 짧은 거리였다. 소방차 네 대가 일제히 데모대열을 향해 전조등을 비추었다. 뜨거운 물을 끼얹은 듯 후끈하고 강렬한 불빛에 광열과 주열은 순간적으로 팔을 들어 눈을 가렸다. 주열은 살그머니 팔을 내렸다. 전조등 불빛으로 소방차 뒤는 두려울 만큼 짙은 어둠 속에 잠겨 버렸다. 경찰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더 두려웠다. 불빛은 묘하게 자신만을 향해 쏘아지는 것 같았다. 제 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느낌이 들면서 그는 웬지 사선에 선 자처럼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춤 물러나던 대열이 다시 맹렬한 투석전을 벌였다. 광열은 주열과 떨어져 이끌리듯 대열 앞으로 나갔다. 앞 대열에 주로 포진한 남학생들이 자갈을 탄환인 양 집어 들어 소방차를 향해 던졌다. 주열도 자갈을 집어 들었다. 몽근 자갈은 몹시 차가웠다. 막상 돌을 집어 들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데모대는 삼시간에 40~50미터를

전진하여 남전 마산지점 앞까지 진출하였다.

탕, 한 방의 총소리가 울려 주열은 움찔했다.

“공포탄이니까 겁먹지 말고 싸우자!”

대열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고 투석전이 더욱 맹렬해졌다. 전조등 불빛 너머로 어렴풋이 앞에총 자세로 이중 삼중으로 도열한 검은 제복의 경찰들이 보였다.

“시민들에게 알린다.”

경찰 쪽에서 핸드 마이크 소리가 들려왔다.

“해산하고 귀가하라. 거들 알린다. 지금 즉시 해산하고 귀가하라.”

“투표함을 내놔라!”

“협잡선거 다시 하라!”

시민들이 응수했다. 잠시 투석전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광열은 불현듯 동생 주열이 생각나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는 뒤쪽 길 가운데에서 흰 셔츠를 입고 얼쩡거리는 동생을 발견했다.

“주열아, 뒤로 물러서!”

그때 누군가 광열의 어깨에 팔을 둘러고 그는 더 동생을 바라볼 수 없었다. 옆의 고등학생이 어깨를 밀면서 스크럼을 짜고 들어왔다. 앞 대열부터 스크럼이 짜지면서 ‘해방가’가 흘러나왔고 노래는 뒤로 이어져 점차 거대한 함성이 되었다.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된 민족, 싸우고 또 싸워서 찾은 이 나라…….”

노래가 끝나면 이번에는 뒤쪽 대열에서 ‘전우가’가 울려 퍼져 앞으로 넘어왔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그때 주열은 그 거리에 서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옆 사람과 어깨를 견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도 그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가슴 한편에서 차오르는 들뜨 열기를 응시했으리라. 그것은 분노와 비감, 공포와 호기심 같은 게 한데 뭉뚱그려진 아주 낮은 마음의 상태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 팽팽한 긴장감, 강렬한 불빛이 자아내는 비현실감이 그런 마음을 더욱 고조시켰으리라.

갑자기 앞 대열이 웅성웅성했다. 주열은 합창하던 입을 다물고 전조등 불빛 너머를 바라보았다. 경찰들이 낮은 포복으로 땅바닥에 엎드리는 게 보였다.

“우우우.”

일순 긴장감이 끼치면서 누군가 돌을 집어던졌다. 그것을 신호로 데모대열에서 일제히 돌팔매질을 시작했다.

소방차 한 대가 물을 뿜으면서 데모대를 향해 돌진해 왔다. 데모대는 그 소방차를 표적으로 돌을 집중해서 던졌다. 돌 하나가 소방차 유리창을 깨뜨리는가 싶더니 운전사가 눈을 감싸 쥐고 뛰어내리는 게 보였다. 소방차는 그대로 질주하여 인도로 올라서더니 전주를 들이받았다. 불꽃이 튀면서 ‘굉’ 하는 폭음이 울렸다. 일순간에 거리는 암흑천지로 변하였다. 자산동은 물론 산중턱으로도 불빛 한 점 없는

암흑이었다. 시내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고압선이 전주가 넘어지면서 합선한 것이었다.

“경찰이 고의로 전기를 끊어버렸다!”

군중 속에서 비명과 같은 외침이 들려왔다. 한편 경찰 쪽에서도 외침이 들려왔다.

“데모대가 계획적으로 정전시켰다!”

그와 동시에 총구가 번뜩이며 총알이 날아들었다. 저녁 8시경이었다. 선두의 한 학생이 악, 하고 쓰러졌다.

“실탄을 쏜대! 실탄이다!”

누군가 소리쳤고 대열이 아비규환으로 돌변했다.

갑자기 총성이 푹 멎었다. 고등학생 하나가 대열을 등지고 경찰 저지선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고 있었다. 그는 쏟아지는 전조등 불빛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저지선 10미터 앞까지 걸어가 발을 멈추고 우뚝 서는 것이었다. 그의 두 손에는 분노를 응응그려 쥔 것처럼 둘둘 개가 쥐어져 있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광열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광열뿐 아니라 그 거리에 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장엄한 풍경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아들이며 동생이 아닌가요? 어찌하여 자제와 형제의 가슴에 총부리를 댄단 말이오. 총을 쏘지 마시오. 총을!”

그는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그리고 돌아서서 외쳤다.

3월 15일 밤 경찰의 발포로 총탄자국이 선연한 무학국민학교 담벼락



소방차의 총들로 정전 사고를 일으키며 쓰러진 전신주

“동지들이여! 저 라이트를 부숴라!”

군중 속에서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돌이 날아갔다. 동시에 단발의 총성이 울렸다. 불빛 속에서 학생은 짙더미처럼 꼬꾸라졌다. 일제히 총구가 다시 불을 내뿐었다. 아스팔트 위에 총알 튀는 불꽃이 작렬했다. 데모대는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서로 부딪쳐 쓰러지고 쓰러진 자를 밟고 도망치느라 삼시간에 거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늘에서는 폭죽처럼 조명탄이 터졌다. 시민들은 법원과 도립병원으로, 남전 옆 골목으로, 자산동과 신포동 골목길로 흩어졌다.

경찰의 총격은 계속되었다. 작렬하는 총성 속에서 비명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부상자들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꿈틀거렸다. 울부짖으며 부상자를 인도로 끌고 가는 시민도 있었다.

“최루탄 준비!”

박종표 경위는 자신이 인솔 중인 기동경찰대원들에게 최루탄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 부하 경찰이 시청 경비차량에 실린 최루탄 상자와 발사기를 가져왔다. 최루탄 발사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시경에서 그밖에 없었다. 그는 지난 2월 중순 경에도 경찰국에서 최루탄 20발과 발사기 한 정을 수령하여 사용법과 성능에 관한 교육을 받은 바 있었다.

그는 총구가 따발총처럼 커다란 발사기에 최루탄을 장전하였다. 그는 크게 심호흡을 한 후 첫 발을 멀리 데모대를 향해 쏘았다. 총소

리보다 더 둔중한 소리가 고막을 치는 것 같아 그는 움찔하며 뒷걸음질쳤다.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귀가 울렸다. 최루탄은 바람을 가르며 소리를 내며 날아갔고 멀리 군중 속에서 자우룩하게 가스가 피어올랐다. 다음 최루탄을 장전하는 그의 손길은 심하게 떨렸다. 총신이 자꾸 처졌다.

최루탄을 장전하다 말고 그는 다시 최루탄을 빼 들었다. 최루탄은 지금까지 쏜 것과는 달랐다. 다른 것보다 크고 묵직했다. 미제 C·N가스탄이었다. 며칠 전 39사단에서 추가로 지원받은 탄이었는데, 후미에 프로펠러가 달려 그는 이 탄을 하늘을 향해 쏘아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거리는 백설기 가루가 흩날리듯 최루탄으로 자욱했다. 서북풍이 불어 가스는 경찰 진압대 쪽으로 서서히 몰려와 시야를 한층 더 가로막았다. 전조등이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지만 더 이상 개미떼처럼 우글거리던 사람들의 모습은 분간되지 않았다. 박종표 경위는 거대한 운무를 대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실탄사격 틈틈이 최루탄을 발사했다. 그는 그날 밤 10시까지 마산시청 주변, 4백 미터 떨어진 무학국민학교 앞, 현산동 굴다리 서북쪽 1백 미터 지점인 마산지방법원 정문 앞, 그리고 그 인근 노상 등지에서 총 12발의 최루탄을 순차적으로 쏘았다.

주열은 아비규환 속에서 몸을 피하느라 바빴을 것이다. 최루가스로 눈을 뜰 수 없어서 더 이상 거리의 어둠은 문제될 게 없었다. 그는

오직 공포감에 사로잡혀 몸부림쳤다. 도망치기 위해 한 발을 내딛으면 누군가의 가슴이 밟히고 몸을 틀면 또 누군가와 서로 뒤엉켜서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누군가는 그를 떠밀며 지나가기도 했을 것이다. 오직 청각만이 예민하게 부풀어 올라 총성과 비명과 발소리가 귓속에서 메아리쳤다. 그때 ‘부웅’ 하고 허공을 가르며 뭔가가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을 테고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쳐들었을 것이다. 그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는 머리를 뒤로 휙 젖히면서 나무토막처럼 나가떨어졌다. 고춧가루를 뒤집어쓴 것 같은 최루탄의 고통도 숨이 막힐 것같이 옥죄던 어둠과 공포도 한순간에 사라졌다. 옥체의 모든 기억들이 전기가 나가듯 지워져 버렸다. 어둠 속에서 그 누구도 그가 쓰러지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설사 누군가 보았다 하여도 품에 안을 여력도 없었을 것이다. 그 거리는 오직 공포와 어둠과 최루가스가 난무하는 생지옥이었으니까.

광열은 이미 대열을 빠져 나와 사람들에 휩쓸리듯 골목길을 달리고 있었다. 소방차가 골목 어귀를 밀고 들어왔다. 그는 어느 가정집 담을 넘고 지붕을 넘어 뒷골목으로 뛰어내렸다. 그 골목으로도 사람들이 뒤엉켜서 도망치고 있었다.

골목 어느 지점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대부분 학생들로 보였는데 어둠 속에서 사람 수를 헤아리느라고 각자 번호를 외치기 시작했고 숫자는 스물아홉에서 끝났다. 광열은 자산동 어른인지는 알겠으나 그곳이 어느 뒷골목인지 가

늠할 수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추녀 끝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휘영청 달이 밝게 떠 있었다. 그러나 전기가 끊겼기 때문인지 심리적으로 그는 달빛이 더없이 어두워 보였다.

골목 아래에서 한 사람이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로 청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깜짝 놀라 경계하며 숨찬 목소리로 물었다.

“시민입니까?”

“그렇소.”

누군가 대답했고, 청년은 그제야 길게 숨을 내뿔었다.

“지금 저 아래 무학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본대가 밀렸는데 경찰대가 총출동하여 정문을 차단했습니다. 경찰의 무차별 총격에 한 어린 학생이 맞고 쓰러졌습니다. 본대를 구출해야 합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 후 덧붙였다.

“그 아이가 쓰러지며 피로 담벼락에다가 뭐라고 썼답니다……. 씨발.”

그는 쿵 하고 울음을 삼켰다. 시민들이 분노에 치를 떨면서 다시 몰려 내려갔다. 광열은 이 거리 저 거리로 쫓겨 다니다가 창원 진동 고개까지 갔다가 장군동 외조모 댁으로 돌아왔다. 새벽 두시 반이 넘어 있었다.

“주열이는 우야고 니 혼자고?”

안 노파가 그를 보고 다짜고짜 물었다. 광열은 어리둥절해서 되물었다.

“아직 안 왔어요, 할매?”

광열은 순진하고 어린 동생이 이미 집으로 돌아와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아이고, 주열이는 죽었구나!”


안 노파는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광열은 신발을 신은 채 방문을 밀어젖혔다. 방은 사람 든 흔적 없이 텅 비어 있었다.

광열이 불길한 예감에 다시 대문을 박차고 나서려는 것을 안 노파가 붙잡았다.

“니까지 죽고 싶나? 지금 저 아래가 어테라고 나가노?”

안 노파는 자신이 괜히 데모에 나가보라 했다고 자책했다.

“뭘 사단이라도 나모 내 느그 어무이를 우째 보노? 인자 광열이 니라도 가마이 있그래이.”



1960년 마산의 봄  
피맺힌 모정

날이 밝았는데도 주열은 돌아오지 않았다. 안 노파는 옆집 청년을 시켜 찾을 만한 곳을 돌아보게 했다. 늦은 아침상을 받아놓았을 때 청년이 돌아왔다.

“도립병원이랑 시민외과, 구외과, 문외과, 금성의원까지 병원이란 병원은 다 돌아봤습니더. 안 보이는데예.”

“아이고, 그람 무사하다.”

안 노파는 한시름 놓았다는 듯 가슴을 쓸어 내렸다.

“야가 놀래서 집에 몬 돌아오고 누 집에라도 들어가 자고 있는갑네. 틀림없다카이. 광열이 니 밥 묵고 찾아보겨래이.”

광열은 밥을 뜨는 등 마는 등하고 집을 나섰다. 무학국민학교 정문 담장 앞에서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어젯밤 청년이 말했듯이 탄흔이 역력했다. 어느 소년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으리라 생각하니 그의 마음은 다시 불안해졌다. 조금 걸어 나와 대로로 나서니 어젯밤의 생지옥이 그대로 펼쳐졌다. 시민들이 바리케이드를 친 자리에는 넘어진 전신주와 방화수용 드림통이 널브러져 있었다. 돌맹이들이 부스럼처럼 거리에 널려 있었고, 드문드문 가마니때기 널린 자리에는 핏자국이 선연했다. 거리는 전쟁을 치르고 난 폐허의 전장과 다를 게 없었다.

광열은 지난밤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는 폐허가 된 풍경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마산상고로 달려갔다. 동생이라면 틀림없이 합격증부터 받으려 갈 것이다. 주열이 푸석한 얼굴로 웃으면서 합격



증을 흔드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삼십여 분을 견고 달리면서 그는 경찰 순찰차가 사람들을 잡아 신고 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다. 경찰의 검거선풍이 불어 닦친 모양이었다. 그는 큰길을 버리고 골목길로 달렸다.

기말시험 중인 교정은 괴괴하였다. 간간이 합격증을 받아 나가는 학생과 학부모가 눈에 띄긴 했지만 환영처럼 손을 흔들 것 같은 동생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합격증을 교부하는 창구로 찾아갔다.

“김주열이 합격증 있습니까?”

한참만에 교직원이 축하한다며 합격증을 내밀었다. 장학생이었다. 동생이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확실했다. 광열은 합격증을 받아 쥐고 도립병원으로 달려갔다. 혹시 부상자 명단에 동생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다. 병원 정문은 실종자를 찾는 가족들로 아우성이었다. 경찰은 정문을 지키고 서서 시민들을 저지했다. 가까스로 경찰 앞으로 다가가 부상자 아무개를 찾으러 왔다고 하였으나 경찰은 다짜고짜 부상자 명단에 그런 이름은 없다고 했다. 광열은 혹시 모르니 직접 병원으로 들어가 찾아보겠노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난밤에 시청 부근에서 세 명이 숨지고, 십여 명이 총상을 입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광열은 하는 수 없이 4백 미터 남짓 떨어진 경찰서로 발길을 옮겼다. 차라리 잡혀가 있으면 싶었다. 지나가는 길에 본 시청도 경비가

삼엄하였다. 창문들은 모조리 박살이 나 있고, 시청 앞 도로에는 돌멩이와 서류들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었다.

청년 하나가 법원 오르는 골목길로 급히 들어가며 말했다.

“이봐,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 경찰들이 눈이 벌게서 닦치는 대로 잡아가는 거 안 보여? 경찰 유치장하고 시청 지하실이 꼭 찻다구.”

“동생을 찾아야 합니다.”

“실종자가 어디 한 둘인 줄 알아. 연행됐는지 모르니 집에서 기다리라구.”

청년은 골목길로 사라졌다. 그러나 광열은 몸을 사릴 계제가 아니었다. 그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무장한 경찰들은 극도의 긴장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듯 보였다. 말이라도 걸면 당장 총을 뽑아 겨눌 것처럼 분위기가 살벌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나마 선량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경찰 하나를 붙들었다.

“동생을 찾습니다. 열일곱 먹은 김주열이라는 학생입니다. 사망자나 부상자 명단에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나 그는 새로 교체되어 왔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경찰 몇 명을 더 붙잡고 물었으나 대답은 한결같았다. 광열이 넋을 놓고 서 있자니까 옆에 선 청년이 조용히 불려서 말했다.

“시민극장 앞 동(東)병원으로 가보이소. 열일곱쯤 된 소년이 사망했으니 시체를 찾아가라는 벽보가 붙었다 카던데.”

“그래요? 이름이 뭐였습니까?”

“글쎄 그건 자세히 못 들었네. 나이가 얼추 그쯤 된다 카더라.”

광열은 2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시민극장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동병원 간호원은 이미 시신을 인수해 갔노라고 했다.

“김주열이라는 학생이었습니까?”

광열은 간호원에게 물었다.

“아니라예. 그 사람은 오씨인데예. 나이도 스물한 살이구.”

광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점점 동생이 살아 있다는 가능성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시외로 몸을 피했거나 최악의 경우 모처로 연행되어 수감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고 그는 자위했다. 그는 손에 쥔 합격증을 발견하곤 새삼 울컥 솟구치는 서러움에 사로잡혔다.

동병원의 시신은 오성원이라는 고아 출신 청년이었다. 그는 구마산 쪽 다방을 돌며 구두닦이를 하며 어렵게 지냈는데 어젯밤 8시 30분 경 시민극장 부근에서 경찰의 총탄에 가슴을 맞고 숨진 것이다. 유가족이 없어 그의 구두닦이 동무 두 명이 시신을 인수해다가 마산 언론인들과 함께 팔용산 골짜기에 묻어 주었다. 그들은 작은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기록하였다.

‘길가는 나그네여, 여기 민주주의를 찾으려다 3월 15일 밤 무참히도 떨어진 21년의 꽃봉오리가 누워 있음을 전해다오.’

몇 해 뒤 두 친구마저 서원곡 개천 바닥에서 함께 음독자살을 하여

친구 뒤를 따라가고 말았다.

광열은 동생을 찾아 하루를 더 마산 시내를 헤매다가 17일 아침 지친 몸으로 진주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는 진주에서 고향 남원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동생이 고등학교에 합격하여 돌아올 줄 알고 부모님과 누나,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떠나기 전에 안 노파에게 당부했다.

“할매, 주열이 돌아오면 바로 남원으로 보내요. 못 올 형편이면 누굴 보내서라도 소식 전해줘요.”

“하문, 돌아올까다. 꼭 돌아올까다. 어무이랑 아버지한테 너무 걱정 말라 거래이.”

함안 터미널에서 그는 신문을 샀다. 이승만이 963만표를 얻어 85%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이기붕이 73%의 지지율로 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었다. 그는 마산 투표상황을 들여다보았다. 6만 5천 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투표율이 95.6%인 가운데 이승만 후보가 5만 3천 표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었다.

남원에 도착한 광열은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만 앓아눕고 말았다. 아버지는 라디오를 켰다. 마산사태에 공산당이 개입된 것 같다는 정부의 말이 전해지는 가운데 국회조사단이 현지에 내려갔다는 보도가 흘러나올 뿐 실종자에 대한 뉴스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짐을 싸며 눈물을 짓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걱정 마라, 주열이는 꼭 돌아올 테니.”

그리고 그는 병중인 남편을 돌아보았다.

“에를 꼭 찾을 때까지 안 돌아올라요. 당신은 걱정 말고 몸조리를 잘하시요.”

어머니 권씨는 홀로 마산으로 떠났다. 그날부터 권씨는 낯선 마산의 거리를 헤매었다. 그녀는 주열의 학생가방을 들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상의는 백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었고, 하의는 검은 물로 염색한 군복을 입었습니다. 신발은 검은 운동화입니다. 우리 아이를 보시면 꼭 연락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병원과 화장터는 물론이고 암매장이 되었을지 모른다면 무학국민학교 뒤편 수도산까지 샅샅이 뒤졌다. 시청, 경찰서, 자유당 당사에 가서는 내 자식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며 울부짖기도 했다. 자유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어디에 감춰두고 연극을 꾸미는 거라고 정치공세를 취했다. 부둣가에 앉아 “주열아, 어디 갔느냐?”며 쉼 목소리로 통곡하는 그녀를 시민들은 매일같이 목격했다.

아들을 찾는 애끓는 어머니 권씨의 사연이 어느덧 마산시민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다. 김주열 실종사건은 시민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당시를 회고하는 많은 시민들이 그런 모성애를 목격한 것은 전무후무하다고 한결같이 증언했다. 시신이 바다에서 떠올랐을 때 시민들이 곧바로 김주열임을 알아본 것도 다 어머니 권씨의 그런 절규 때문이었다.

연론도 관심을 갖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3·15의거 이후 다섯 명의 시민 행방불명자가 발생했는데 나머지 네 사람은 다 확인되고 오직 김주열만 못 찾고 있었던 것이다. 기자들은 화장터를 취재하고 다녔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시민들 사이에 암매장했다, 수장했다는 풍설만이 난무했다. 심지어는 관공서 연못에서 시체 6, 7구가 떠올랐다는 흥흥한 소문도 나돌았다. 그러나 어떤 실마리도 잡히지 않고 시간만 흘러갔다.

3월도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저녁이었다. 마산일보사 편집국에 한 익명의 시민에게서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김주열 시체 말어요. 가마니에 담아 돌을 매달아서 시청 뒤 연못에 던졌으니 물을 푸면 나올 것어요.”

놀라운 제보였다. 편집국 기자는 수화기를 귀에 바투 갖다댔다.

“시청 뒤 연못이라면 철도청 저수지 말입니까?”

“그래요. 기관차 급수용 저수지 말어요.”

“실례지만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마산 시민입니다. 더 이상은 밝힐 수 없어요. 꼭 수색해 보세요.”

더 물을 새도 없이 제보자는 전화를 끊었다. 당장 그 소식이 주위에 전해졌다. 한 아주머니한테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 권씨는 연못으로 달려갔다. 연못이라고 하기에는 못이 너무 컸다. 그녀는 시퍼런 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무슨 수가 있어도 이 못물을 다 퍼내겠다.”

그녀는 서울에서 내려와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던 국회조사단을 찾아가 수색을 호소하였다. 권씨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29일 낮 정오부터 소방차 두 대가 동원되어 물을 푸기 시작했다.

우중인데도 아이들까지 포함된 5백 명의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지켜보았다. 취재진도 대거 출동하여 현장 속보를 타전하기에 바빴다. 우의를 걸친 권씨는 간간이 연못에서 눈을 들어 연못 너머를 바라보곤 했다. 미창 창고와 판잣집 지붕이 비에 젖고 있었다. 권씨는 이곳에서 이들의 시신이 발견되면 자신도 물에 뛰어들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또 속절없이 눈물이 흘렀다.

수량이 7백 톤이나 되는 못물은 좀체 줄지 않았다. 오후 4시면 끝나라라는 예상과는 달리 저녁 7시가 넘어도 수면 밖으로 드러나는 제방은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었다. 연못 깊이가 족히 7미터는 된다고 하였다.

물 푸는 작업은 이튿날도 계속되었다. 그날만도 다섯 시간 동안 쉬 없이 물을 퍼내자 바닥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물이 웬만하게 빠져 1미터쯤 남은 오후에는 수영선수 세 명이 투입되었다. 두어 시간을 연못바닥을 살살이 뒤졌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저녁 6시가 넘어서면서 어둠이 내렸고 수영선수들이 수색을 포기하고 물 밖으로 나왔다. 이내 소방차도 철수했다.

“물을 더 퍼라!”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못에서 시체가 발견되지 않자 당국에



김주열의 시신을 찾기 위한 칠도청 기관차 급수용 저수지 수색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서는 이때다 하며 김주열이 죽지 않았다고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심정을 묻는 기자들에게 권씨는 말했다.

“몇 달 몇 년이 걸리더라도 아들을 꼭 찾고야 말겠습니다.”

그러나 권씨는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살아 있을 가능성이 희박해져 간다는 사실은 그녀를 더 힘들게 했다. 어찌면 생때 같은 아들의 시신마저도 영영 찾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럴수록 그녀는 더 기를 쓰고 시내를 헤매었다. 어떤 때는 정말 실성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대놓고 그녀를 정신이상자 취급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30일에는 경찰이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을 공식 발표했는데 물론 김주열의 이름은 빠져 있었다.

4월로 넘어 가면서 권씨는 거의 실신상태에 이르렀다. 수시로 주열이 꿈에 나타나 울고 갔다.

“엄마, 엄마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눈을 못 뜨겠어요.”

어찌나 짠하고 가슴 아픈지 울다 깨어나 보면 실제로 흐느끼고 있었다.

“아무래도 우리 주열이가 원통하게 죽었는겁다.”

그녀는 목놓아 울었다. 때마침 남편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편지가 날아왔다. 남편 식구들은 라디오 하나를 붙들고 마산 상황을 접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김씨는 연못 수색에 기대를 걸었다가 크게 낙담한 모양이었다. 편지에는 아이도 찾지 못하면서 스무날 가까이 무엇

을 하느냐며 당장 돌아오라고 쓰여 있었다.

하용웅이 권씨를 찾아왔다. 그는 후기 대학시절을 치르고 서울에서 곧장 달려온 길이었다. 주열에게 마산상고 진학을 권유한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만 같아 하용웅은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가 왜 죄송하느냐? 그런 말 마라.”

권씨는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살은 쪽 빠져서 무슨 병의 말기 환자 같았다. 하용웅은 어머니만이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께서 먼저 쓰러지겠습니다. 일단 저랑 남원으로 돌아가시죠.”

“주열이를 못 찾았는데 어디를 가느냐? 나는 못 간다.”

“어찌면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어머니. 몸을 추스르고 다시 찾아요.”

권씨는 연신 고개만 저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는 일이라 믿는 사람처럼 완고했다.


하용웅은 민주당 조사위원들이 묵고 있는 창동의 파초여관을 찾아갔다. 조재천, 현석호 의원을 만나 권씨를 모셔갈 테니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의원들이 나서서 어머니를 설득했고, 권씨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순순히 따랐다. 주열이 어딘가에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실낱같은 기대마저도 접은 듯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아들을 찾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을 다시 찾아다녔다. 민주당 마산시당에 가서는 감찰부 의장을 붙들고 하소연하였다. 그녀는 꿈 이야기를 하며 다시 눈물을 찍어냈다.

“남원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애 아버지가 병중이라 마냥 있을 수도 없군요. 우리 주열이가 나타나면 즉시 연락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신문사를 돌아다니며 주열이 찾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신신 당부했다.

4월 11일 아침 8시, 어머니 권씨는 하용웅과 함께 버스에 올랐다. 남원까지는 진주, 산청, 함양을 거쳐야 하는 10여 시간이나 걸리는 장거리 여행이었다. 마산에서 십여 리 떨어진 진동고개를 오를 때 갑자기 버스가 미끄러지며 산비탈에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버스 한 쪽 유리창이 모두 깨지는 심상찮은 사고였다. 아들의 시체가 발견되기 직전이었다.



1960년 마산의 봄  
되살아난 항쟁의 불길

4월 11일 밤, 조연구 치안국장과 최치환 공보실장, 국방부 고급간부들이 마산 사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입장을 표명했다.

‘마산사건의 군중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폭도로 규정할 것이며 앞으로 소요죄를 적용할 것이다.’

마산도립병원 시체 안치실은 이단희 씨 등 민주당 열성 당원들과 시민 수십 명이 모여 지켰다. 아직 밤 날씨가 쌀쌀한데다가 보슬비마저 내려 처마 밑에 모닥불을 지폈다. 민주당원들과 시민들은 입원실 하나를 빌려 교대로 들어가 눈을 붙이고 나왔다. 자정이 넘어서도 검찰이 고용한 인부들이 병원 복도에서 서성거렸다.

“주열 군의 시체에 손만 대면 시민 학생들에게 즉각 연락해서 실력으로 맞설 것이다.”

그렇게 위협하면서 시체 사수대는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밤새 보슬비는 점점 굵어져 이튿날은 종일 굵은 봄비가 뿌렸다. 거리에는 3인 1조를 이룬 경찰 병력이 곤봉을 차고 순찰을 돌고 있었다. 대부분의 상점들이 휴업에 들어갔다. 시민들이 뿌린 투표 용지들이 비에 젖은 채 땅바닥에 나뒹어 있었다. 장군천에도 투표용지와 서류들이 숨을 풀어놓은 듯 하얗게 떠다녔다.

창원군청에서는 자유당과 민주당 측 협상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김주열의 시체에 박힌 쇠붙이를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산지검 허형구, 한옥신 검사가 시체 검안을 지휘하고 집도할 의사는 경찰 측 구봉식, 자유당 측 김병국, 민주당 측 김화수

로 결정되었다.

김주열의 시신 검안이 오늘 안으로 있을 거라는 소문이 퍼지자 시민들이 아침부터 도립병원 근처로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외과의 김병국이 집도를 맡는다는 정보가 돌자 시민들은 그가 자유당의 앞잡이라고 극구 반대했다.

오전 10시 경, 마산공고 학생들 5백 명이 '김주열 군을 사살한 경찰을 학생에게 맡겨라!' 고 쓴 피켓을 들고 먼저 가두로 뛰쳐나왔다. 그들은 스크림을 짜고 해방가를 부르며 도립병원, 시청, 경찰서를 거쳐 제일극장에서 되돌아와 1시 30분 경에 학교로 돌아가 해산했다.

뒤를 이어 창신농고 2백 명, 마산여고 4백 명, 마산고 5백 명의 학생들이 합류하여 가두시위를 벌였다. 학교장과 교사들이 데모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렬의 앞뒤로 따라다녔다. 경찰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경찰서 경비만 치중한 채 진압에 나서지 않아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후 들어 제일여고생들도 시가행진을 벌였고, 오후 2시 경에는 마산상고생 1천여 명이 시위대열에 가담하였다. 학생 시위는 길가에 늘어선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다. 궂은 날씨임에도 길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은 자그마치 1만 명에 달했다.

학생 시위대는 오후 3시 경 도립병원에 집결했다. 이들은 김주열의 시신 앞에 묵념을 하고 헌화를 한 후 돌아갔다. 간호학교 학생 20여 명도 이 조문에 참여했다.

같은 시각, 마산고 학생들은 마산경찰서 앞에 주저앉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정당의 지령이나 일반인의 선동에 의하지 않는 자발적인 데모를 했다. 김주열 군이 잔인무도하게 살해된 사건을 용인할 수 없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김주열의 시체 검안은 하루 연기되었다. 다만 X-레이 촬영은 실시하였는데, 촬영 결과 포탄 형태가 확인되고 불발탄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옥신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군수지원사령부로 전화해 포탄제거를 의뢰했다. 군 측에서는 포탄 제거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하고, 제거수술은 13일 오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3시 20분 경에는 마산고 학생들이, 40분에는 마산상고 학생들이 자산동 앞길에서 마지막으로 해산하였다. 학생 시위대는 해산하였으나 학생과 시민들은 도립병원 주위를 맴돌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느라 흩어지지 않았다. 시민들 사이에는 김주열의 죽음에 대한 온갖 루머가 나돌았다. 그 가운데서도 김주열이 고문으로 죽자 경찰이 머리에 포탄을 박아 사인을 은폐하고 바다에 수장했다는 쪽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기울어졌다.

오후 5시에 ‘민주당 국회의원 이라고 쓴 지프 한 대가 인파를 헤치



고 도립병원 앞에 도착했다. 즉석에서 간호학교에서 가져온 책상으로 연단이 꾸며졌다. 민주당 도당 부의장이며 국회의원인 김용진이 연단에 올라 마산시민의 분노를 덜어드리기 위해 윤보선 선생이 이곳에 왔다고 소개했다. 윤보선은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연단 위로 올라섰다.

“친애하는 마산 시민 여러분, 저 윤보선은 이번 사태를 평화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이곳 마산으로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불타는 정의감과 분노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들을 마땅히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무고하게 다치고 사망한 시민들에게는 국가가 나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어떤 탄압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민주당 만세,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연호하였다. 윤보선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여덟 명이 수습대책위원회를 꾸려 내려온 것이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저녁 6시부터 있을 회의를 위해 창원군청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내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이 발표되었다.

선거가 끝난 오늘날 선거결과에 대한 적법여부는 의당 법절차에 의하여 해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력 등 방법을 행사하여 선량한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배후 조종에는 적색마수가 개재된 혐의가 있어 조사 중에 있으니 선량한

국민 여러분은 이에 부화뇌동 말 것이며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국법에 의하여 엄중 처단할 것이니, 국민 여러분은 정부의 이와 같은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곳은 비에 젖은 침울한 거리에는 야간통행금지를 연장한다는 공고문이 나붙었다. 창원과 마산지역 일원에 저녁 7시 이후로 통행이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극장과 식당은 일찍 문을 닫았다. 진주나 부산으로 운행하는 여객버스들도 갑작스런 야간통행 제한으로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

문교부에서는 마산 시내 중·고등학교에 다음날부터 휴교령을 내린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군에서는 마산화력발전소 경비 병력으로 헌병 20여 명을 출동시켰다. 마산에는 계엄도시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조치가 시민들에게 또 다른 저항의 불씨가 되었다.

7시 정각, 통행금지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시민들은 오히려 이를 신호 삼아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데모대는 세 파로 나뉘어 경찰서 방면, 구마산 방면, 창원군청 쪽으로 행진했다.

경찰서 방면으로 진출한 수천 명의 시위자들은 경찰서를 향해 돌을 던졌다. 경찰서 앞 가로등이 시위대의 투석으로 모조리 깨졌고, 경찰 차량 한 대도 불에 탔다.

창원군청 군수실에서는 윤보선을 포함한 민주당 수습대책위원 여

덥 명이 신도성 경남지사와 이정용 도경국장과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하고 있었다. 시위대 5백여 명이 창원군청을 에워싸고 시위에 들어갔다.

민주당 대책위원들은 4개항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1. 4월 11일 제2 마산소요사건을 불문에 붙일 것.
2. 살인 및 고문 경관을 구속할 것.
3. 3·15사건 때 발생한 사상자 유가족을 보호할 것.
4. 행방불명자를 찾아낼 것.

지루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시위대는 어느새 3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기다릴 수 없다. 빨리빨리 결정하라!”

“우리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라!”

시위대는 거칠게 항의하다가 급기야 회의장으로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민주당 박충모 의원이 날아든 돌에 얼굴을 맞아 피를 흘리는 부상을 당했고, 도지사와 경찰국장은 쏟아지는 유리 파편을 피해 책상 밑으로 숨었다가 도망갔다. 간신히 몸을 피한 이들 두 사람은 신문사 지프를 빌려 타고 마산을 빠져나간 후 함안을 거쳐 부산으로도 주해 버렸다. 그들이 타고 온 관용 지프는 시위자들 손에 박살났다.

밤이 깊을수록 시위대는 늘었고 더 과격해져서 곳곳에서 투석전이

벌어졌다.

“고문경관 체포하라!”

“협잡선거 다시 하라!”

2만 정도로 추산되는 시위대가 마산경찰서에서 시청, 독립병원을 거쳐 자산동 철교 밑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가득 메웠다. 8시가 넘자 카빈총으로 무장한 경찰이 마산경찰서 담 너머에서 진압태세를 갖추었다. 무장경찰 병력은 150명이 넘었다. 소방차 세 대가 시동을 걸어 놓고 대기하고 있었다. 투석전이 가열되자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공포를 쏘고 소방 호스로 물을 뿌렸다. 사십여 명이 경찰서 앞에서 연행되어 갔다.

치열한 공방전이 밤 11시에 이르자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시위대는 자진 해산했다. 경찰은 때를 놓치지 않고 시민들을 쫓아 무차별 검거에 나섰다. 거리에서는 학생, 청년들이 곤봉으로 모질게 맞으며 연행되어 갔다.

독립병원에는 청년들과 민주당 당원 백여 명이 남아 김주열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철야에 들어갔다. 자정이 넘은 거리는 피땀 흘린 절규와 함성이 잦아들고 적막의 심연으로 빠져들었다.

13일에도 비가 내렸다. 병원에서 밤을 새운 민주당 이단희 씨는 당원 정씨와 함께 시내로 나왔다. 김주열의 시신을 덮은 태극기가 때가 끼고 초라한 것을 본 민주당 강선규 위원장의 부친이 선뜻 천 환을

내주며 새 것을 구해 보라고 했던 것이다.

대형 태극기를 사서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데모를 벌이는 백여 명의 데모대와 만났다.

‘피로써 찾은 자유를 총칼로 왜 뺏느냐?’

‘보장된 기본인권 그 누가 뺏을손가!’

헤인대 대학생들이었다. 연도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단희 씨 일행도 박수갈채를 보냈다. 병원 앞에 도착해보니 방독면을 착용한 120명 정도 되는 무장경찰이 병원 바깥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다. 소방차도 동원돼 있었다. 이단희 씨 일행은 경찰에 제지당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노?”

“곧 포탄제거 수술이 시작됩니다. 국회의원이 와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자 이단희 일행은 화장실을 통해 들어가기 위해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러자 사복경찰이 따라왔다.

“출입은 안 됩니다. 밖에서 머무르시오.”

“그럼, 이 태극기를 안치실에 전해 주시오.”

이단희 씨는 태극기를 내밀었고 사복경찰이 받아갔다. 그러나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시체 검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사이 헤인대 학생들에 이어 성지여중고생 3백 명, 마산여중고생 8백 명이 마산상고 앞에서 집결, 김주열에게 바칠 조화를 앞세우고 시가행진에 돌입했다. 그들은 군가를 제창하며 남성동파출소를

지나 신마산 쪽으로 질서정연하게 행진했다. 행렬이 자산동 철교 밑에 이르렀을 때, 경찰 사십여 명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소방차 두 대가 붉은 물감을 쏜 물을 뿜어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여학생들의 하얀 교복 칼라에 핏빛 물이 들었다.

“김주열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조화를 바치려는데 그런 자유마저 막느냐?”

학생들이 투석을 시작했고 경찰은 공포를 싸 대응했다. 순식간에 50여 발의 공포탄이 발사되었다. 겁에 질린 학생들은 구마산 쪽으로 후퇴하였다. 소방차는 붉은 물을 뿌리며 부림동까지 밀고와 학생들을 해산시켰다.

한편 자유당은 오전에 당무회의를 열고 마산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엄단 처벌방침을 정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간 임시국무회의에서는 대검찰청 오제도 검사와 조인구 치안국장, 하갑청 육군특무대장으로 ‘대공 3부 합동수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내무부, 국방부, 법무부 소속의 수사 전문가들을 마산에 상주시켜 적색분자들의 준동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또 이날 오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담화문이 발표되었다.

이 난동에는 뒤에 공산당이 있다는 혐의가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인 데 난동은 결국 공산당에 좋은 기회를 주게 할 뿐이니 극히 조심해야 될 것이다.

오후 들어 비가 점점 굵어져 폭우로 바뀌었다. 민주당 대책위에서는 오후 3시 경 어머니 권씨를 데려오기 위해 남원으로 박찬현 의원을 보냈다. 그리고 권씨가 도착할 때까지 하루만 검안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당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민주당은 시체 검안을 시작할 경우 민주당 측이 데려온 의사를 입회시키고, 신문기자들의 입회 취재도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도 거부하였다.

시체 검안은 오후 4시 30분 경에 일방적으로 시작되었다. 입회인은 총 여덟 명이였다. 한옥신 부장검사와 허형구·정창훈 검사, 서기, 도경 수사과장, 마산 502부대장, 그리고 유족대표로 김함수와 박준수가 입회하였다. 박준수는 진주에 사는 주열의 이종사촌형이였다. 입회인들은 모두 흰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집도는 시내 세 군데 외과의들이 맡았다. 김외과 원장 김병국과 구외과 원장 구봉식 그리고 시민외과 원장 김화수가 그들이였다.

입회가 허용되지 않은 신문기자들이 경찰 저지선 밖에 머물며 불평을 토로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으나 경찰 저지선을 넘을 수 없었다.

김주열의 시신은 가마니를 깬 검안실 수술대 위에 올려졌다. 광목 천을 벗겨내고 시신의 옷가지를 칼로 오려 벗겨냈다. 시신은 머리 부위만 빼면 전반적으로 깨끗해 보였다. 가스가 차올라 하복부가 불룩하게 부풀어 있었다. 검시는 먼저 하반신부터 시작되었다. 밖에서는 간간이 ‘김주열을 살려내라!’는 시민들의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몸

바깥 검안은 김병국이, 내장과 뇌 검안은 김화수가 각각 역할을 나누어 진행했다.

“하반신에서 생전에 손상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허리나 팔 등에 멍이나 새끼를 맨 흔적도 없습니다.”

김병국이 진술하고, 김화수가 검시 감정서에 받아 적었다. 하복부나 가슴, 등에서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머리를 왼편으로 젖혔을 때 의심스러운 상처가 발견되었다. 둔기로 맞은 듯한 파열상이 50밀리 가량 나 있었다.

“직접적 사인이 거기 있습니까?”

한옥신 부장검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요.”

구봉식이 안경을 걷어 올리며 김병국을 바라보았다. 김병국이 시신의 머리를 돌려놓으며 의견을 말했다.

“눈에 박힌 포탄을 제거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포탄이 사후에 박혔다면 이 파열상이 직접사인으로 유력해지겠죠.”

해부에 앞서 포탄제거를 위해 검안이 중단되었다. 수술대에서 서너 발 물러나 고개를 틀고 있던 유가족 박준수가 입을 열었다.

“저희들은 그냥 남원으로 옮겨 장례를 치렀으면 합니다.”

입회한 사람들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저 성난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위험하더라도 포탄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 부장검사의 말을 도경 수사국장이 받았다. 대기하고 있던 포탄 제거반 장교들이 들어섰다.

포탄 제거는 육군 병기탄약 사령부에 근무하는 임원배, 김은태 대위와 김창학 중위가 맡았다. 특히 임 대위는 미국에서 2년 간 탄약검사교육을 받은 폭탄전문가였다. 김병국이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설명했다.

“포탄 길이는 180밀리, 직경은 40밀리였소. 포탄은 왼쪽 눈을 관통해 뒷머리 밖으로 돌출했고…….”

임 대위는 시신의 얼굴에 박힌 포탄을 들여다보았다. 눈 밖으로 돌출하여 이지러진 금속은 포탄의 꼬리 부분에 장착된 프로펠러가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게 어떤 종류의 포탄인지 그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었다. 그는 긴장되어 마른 침을 삼켰다. 더구나 시신에서 포탄을 빼내는 임무는 그에게 처음이었다.

“폭발할 위험에 대비하여 도르래를 이용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을 100미터 밖으로 피신시키십시오.”

임 대위의 계획에 부장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선 시신을 고정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시신은 하반신부터 머리까지 수술대와 함께 붕대로 감아 고정시켰다. 시체 고정이 끝나자 포탄의 프로펠러가 접합된 잘록한 후미에 전깃줄을 감아 밧줄을 묶을 수 있는 고리를 만들었다.

천장에는 마침 옷걸이 같은 햇대가 가로 걸려 있었다. 이곳에 도르

래 2개가 설치되었다. 김 중위가 도르래에 밧줄을 걸어 늘어뜨리자 김은태 대위가 받아 포탄 고리에 묶었다. 두 장교는 밧줄 꾸러미를 풀며 수술실 밖으로 나갔다. 밧줄 길이는 족히 30미터가 넘었는데 그들은 마당을 가로질러 경찰 저지선 뒤에서 멈췄다. 임 대위가 한옥신 검사에게 눈짓으로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냈다.

“자, 우리들도 밖으로 나갑시다.”

입회인들도 수술실 밖으로 나갔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하늘에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시민들이 경찰 저지선 너머에서 구름처럼 몰려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경찰 대여섯 명이 밧줄을 잡았다. 임 대위는 일일이 밧줄 짊 자리를 지목해 주었다. 김 중위가 방독면을 착용하고 수술실 문 앞에 대기했다.

“하나 둘 셋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만반의 준비가 끝나자 임 대위는 심호흡을 했다. 병원 근처에 몰린 군중들도 긴장으로 조용했다. 경찰들도 고개를 돌려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고, 경찰들은 힘껏 밧줄을 잡아당겼다. 아주 짧은 순간 밧줄이 팽팽해지는가 싶더니 끊기 듯 느슨해졌다. 뒤쪽에 선 경찰 두 명은 젖은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았다.

“포탄이 뿔혔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김 중위가 소리쳤다.

추출된 포탄은 직경 40밀리, 길이 180밀리에 탄피는 알루미늄으로 된 고성능 최루탄이었다. 꼬리 부분에 프로펠러가 달린 최루탄은 건물 벽을 뚫고 들어가 폭발하도록 제작된 대무장 진압용이었다. 탄명은 티어(TEAR), 일명 ‘미제 씨·엔(C·N)가스’로 불리는 탄이었다. 최루탄 겉면에는 ‘직접 군중을 향해 쏘지 말고 벽 뒤의 사람에게만 사용하라’ (‘Don’t use on the crowd. Use only person on barrier’)라고 주의사항까지 적혀 있었다.

최루탄이 제거되자 김화수가 시신해부를 시작했다. 폐에서는 물이 발견되지 않아 죽은 후 바다에 던져진 것이 명백해졌다.

“늑막에 유착이 보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요?”

한옥신 검사가 물었다.

“과거에 늑막염을 앓은 흔적입니다.”

위를 열었더니 밥알과 김치, 콩나물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 80그램 정도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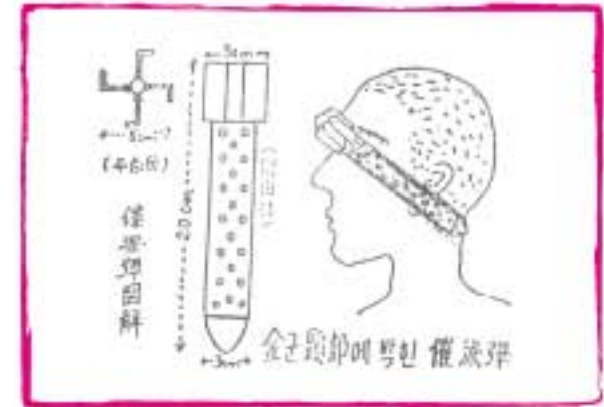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되는 데 통상 얼마나 걸립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면 두 시간이면 위에 음식물이 남지 않습니다.”

다음은 심장이 해부되었다. 우심방과 하심실에 아직 응고되지 않은 혈액이 약 5cc 정도 남아 있었다.

김주열 시신에 대한 도해 (동아일보 4월 14일)



김주열의 얼굴에서 제거한 최루탄 실물. 국회조사단의 증거물로 제출되었다.

마지막 남은 것은 뇌였다. 김화수는 최루탄이 파괴한 뇌를 굳이 해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뇌출혈을 검사한다 하더라도 외부 타박상에 의한 뇌출혈인지, 최루탄에 의한 뇌출혈인지 감별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당장 최루탄을 쏜 자리는 동그랗게 벌어져서 목 뒤로 뇌수가 쏟아지고 있었다. 뇌하수는 다 부서지고 두 개의 저골도 파괴되어 있었다. 의사들은 직접적 사인은 최루탄에 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밖에서 야간 통행금지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이내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다. 김화수는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하는 표정으로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의견을 취합하여 검시 감정서를 작성했는데 입회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내어 기록했다.

“탄이 눈밑 상악실, 상악동, 목(두개골), 후경부, 피하를 관통하였음. 사인은 직격탄이 안면의 연부를 뚫고 나가면서 뇌수를 쳐 직사.”

7시 20분, 해부를 마친 의사 김병국이 기자단의 질문에 해부 소견을 발표했다. 통행금지가 내려졌는데도 시민들은 물러가지 않고 병원 주변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고문 흔적이나 밧줄을 맨 흔적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불발탄이 눈에 박혔는지 밝혀졌습니까?”

“군 포탄 제거반의 소견에 따르면 이 최루탄은 건물 벽이나 땅바닥처럼 단단한 곳에 닿아야 폭발하는데 그 전에 부드러운 사람의 몸에 박히는 바람에 불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경찰이 직접 쏘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후에 박았다는 뜻입니까?”

“.....”

김병국은 천천히 머리를 저었다.

“최루탄으로 미루어 3월 15일에 사망한 게 확실한데 시체가 27일이나 지났는데도 전혀 부패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바다 밑바닥에 지하수가 솟아나는 곳이 있는데 시신이 바로 그런 곳에 놓여져 냉동상태로 있다가 떠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체검안 결과를 믿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인이 왼쪽머리 부분의 파열상에 있다고 보았다. 그 파열상은 고문의 흔적이며 경찰은 이것을 숨기기 위해 포탄을 박은 다음 큰 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진 것으로 믿었다.

“사인규명 다시 하라!”

“폭력경찰을 내놓아라!”

이미 경찰은 통행금지를 기해 대대적인 검거선봉에 들어가 있었다.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을 닦치는 대로 체포해갔다. 귀머거리에 반신불수인 여인도 끌고 가는 무차별한 검거작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자정까지 벌어진 경찰의 검거선봉에 검거된 시민이 모

두 1천여 명에 달했다.

경남 경찰국장은 이날 밤 8시 경에 마산 상황에 대해 조인구 치안 국장에게 급히 전문을 타전했다.

1. 지금 마산은 비가 쏟아지고 있다. 경관들은 비에 뒹뒹 젖어 있다. 거리에는 10미터마다 5명씩의 경찰관을 배치시켜 통행인을 무조건 검거, 구류하고 있다.
2. 7시 야간통행금지 시간 이후 국회의원과 신문기자에 대하여는 그 신분이 확실함을 인정하면 '수고하십니다', '실례하였습니다' 라고 대접하여 보내주고 있다.
3. 7시 30분 현재, 야간통행금지 위반자 250명을 검거했으며 계속 검거 중에 있다. 검거자에 대하여는 심문도 하고 있으며 신원이 확실한 무혐의자는 석방, 귀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
4. 현재의 형편상 검거자를 구류할 수 없어 정거장에 교섭하여 화차 2량을 빌어 구류시키고 있다.
5. 김주열에 대한 시체해부는 민주당 측 추천의사 입회 하에 하오 4시 30분부터 시작하여 동 7시에 끝났는데 눈에 박혀 있는 탄환은 '미제 최루탄' 이었다.
6. 김군의 시체를 그의 고향인 남원에 이송하는 데 있어 이 사실이 시민에게 알려지면 일대 소란이 일어날 것이므로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실제 이송은 14일 새벽 1시에 실시하겠다.

밤 11시, 경찰은 데모대가 물러가고 인적이 뜸한 시간을 틈타 신속하게 시신을 도립병원 뒷문으로 빼냈다. 병원 뒤편에 앰블런스와 수송트럭이 대기하고 있었다. 봄비가 그치지 않고 세차게 내렸다. 날이 계속 굳아서 장마철이 이르게 온 것만 같았다. 시신은 삼엄한 경비 속에서 앰블런스에 실렸다. 유가족 박준수와 호송경관 3명이 탑승했다. 나머지 경찰 병력이 수송트럭에 탑승하자 앰블런스가 출발했다. 그 뒤를 신문사 취재차량들이 따랐다.

한편, 고향 남원 가족들은 주열의 시체가 떠오른 사실을 하루 늦은 12일에야 알았다. 남원경찰서에서 찾아와 주열의 인상착의를 묻고 알려주었다.

“마산경찰서로부터 경비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에도 나왔더군요.”

권씨는 곧바로 남원 시내 동아일보 지국을 찾아갔다.

“신문보도가 사실이요?”

권씨는 지국장이 난감한 얼굴로 건네주는 신문을 받아 펼쳤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배 위로 끌어낸 시신의 사진이었다. 마치 부끄러운 듯 시신의 오른팔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러나 권씨는 시체의 흰 셔츠를 보고 한눈에 사진 속 시신이 아들임을 알아보았다. 그 하단에 이모인 안 노파가 통곡하는 사진도 실려 있었다.

권씨는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다. 근 한 달이 되도록 안 나타난 아들이었다. 마산 시내를 찾아 헤매면서 워낙 기막힌 사연들을 많이 접



해서 이들이 경찰에 희생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럴 수가 없어요. 주열이가 아니에요. 나는 시체를 못 받겠으니 이기봉의 집에 갖다주라고 전하시오.”

뒤따라왔던 경찰 지프 한 대가 지국 앞에 멈췄다.

“잠깐 저희들이랑 얘기 좀 나누시지요.”

경찰은 권씨를 읍내동 동승리의 길다방으로 데려갔다. 검찰청에서 사람이 합류하여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게 뭐요?”

“시체 인수증입니다. 지장을 찍으면 우리가 이곳까지 운구해 드리겠습니다.”

“히, 그렇게는 못 하겠소.”

“아주머니, 시체가 마산 시민한테 넘어가면 또 데모가 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수습을 해야지요.”

“그러면 좋소. 시체가 넘어오면 남원서도 서울 가는 길이 있으니 난 그 아이 시체를 갖고 열두 번도 더 서울로 올라갈 수 있소.”

권씨가 워낙 완강하게 나오자 경찰도 별 수 없이 물러났다.

그러나 경찰 십여 명이 아예 집을 에워싸고 출입을 감시했다. 일부는 집안으로 들어와 상주했다. 광열이 화장실에 가는 길까지 따라다녀서 그는 대문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어머니, 당장 마산으로 달려갑시다.”

그러면 경찰이 깜짝 놀라서 달려왔다.

“아니, 시신이 지금 출발해서 오고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런 대답이 이틀이나 되풀이되고 있었다.

시신을 호송하는 앰블런스는 비 내리는 밤길을 달렸다. 사천에서 경찰 병력이 교대를 하였는데 그때까지 주열의 시신은 알몸인 상태였다.

새벽 4시 30분 경에 박찬현 의원 등 민주당 사람들 네댓 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어제 오후에 마산을 출발하여 이제야 도착한 것이었다. 시체를 인수하자는 말에 권씨는 거품을 물고 소리쳤다.

“나는 주열이 시체를 인수할 생각이 추호도 없소. 시체를 서울로 싣고 가시오.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 앞에 갖다 주란 말요. 그들이 처리해주면 내 억울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까, 그 전에는 억울해서 난 못 받소.”

권씨가 워낙 완강하게 나오자 이들은 아버지 김씨를 붙들고 설득했다. 김씨도 마찬가지였다.

앰블런스는 아침 8시쯤 남원 시내에 도착했다. 경찰은 비로소 주열의 시신을 입관했다. 소식을 접한 권씨는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쳤다.

“나는 죽어도 못 받소. 서울 보내 이기봉한테 보일라요.”

그러자 친지 어른들이 나섰다.

“그러지 말게. 아이를 물어 주세나. 객지에서 그래서 집으로 들이지는 못해도 편안히 물어 줘야지.”

관을 실은 앰블런스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동네 어귀를 한 바퀴

돌아 곧장 장지로 향했다.

막상 아들의 시신을 눈앞에 두고 권씨는 여염집 어머니로 돌아왔다.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마을 초입 길가의 우비산으로 향했다. 무장한 경찰들이 길가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흰 천으로 씌운 관은 들것에 실려 아직 모를 안 낸 개천가 논바닥에 내려져 있었다. 남원의 자유당과 민주당 도의원과 국회의원들, 교육감, 남원경찰서 서장, 취재진들이 몰려와 있었다. 때마침 남원 장날이어서 지나가던 주민들도 조문에 참가했다. 그곳에서 간단하게 노제를 지냈다. 관 앞에 주저앉은 아버지 김씨는 망연자실하여 중얼거렸다.

“우리 주열이 맞는지 관 좀 뜯어보자. 제 운명에 죽어도 억울한데 총을 쏘서 죽이고 눈에다가 못까지 찼으니 이런 끔찍한 일도 있느냐?”

그러자 남원 국회의원 안균섭이 나서서 만류했다.

“맞으니 뜯어볼 필요 없습니다. 아뻏들 해, 운구하지 않고!”

집안 어른들도 극구 반대였다. 사촌 형과 집안 머슴들이 관을 들었다. 가족들과 일가친척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운구행렬 뒤를 따랐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흠을 한 줍씩 뿌릴 때 여기저기에서 곡성이 터져 나왔다. 어머니 권씨는 땅을 치고 통곡하였다.

“내 아들을 죽인 놈을 찾아내라! 이기봉 당선시키겠다고 내 아들을 죽이다니 웬 말이냐! 아이고, 억울하다. 불쌍해서 우리 아들 어쩔꼬.”

큰누이는 줄곧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권력 앞에 기필코 항거하겠다.”

우비산 기슭에 묻히기 전 가족과 친지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어머니 권천주 여사는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고 말했다.

분노와 걱정예 휩싸인 하용웅은 즉흥시를 낭송하며 절규했다.

11시가 다 되어 봉분이 올라가고 묘 앞에는 '4월의 영혼, 고 김주열 군의 묘' 라는 흰 비목이 세워졌다. 어머니 권씨는 묘지에 엎드려서 떠날 줄 몰랐다. 그녀는 잠긴 목소리로 기자들에게 말했다.

“우리 아들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마오.”

다음날 마산에서는 주열의 시신이 폭우가 쏟아지는 야음을 틈타 남원으로 떠났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일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비분강개하여 경찰서와 도립병원에 돌팔매질을 퍼부었다.

장례식이 끝나자 권씨는 고려대에 다니는 주열의 5촌 조카뻘 되는 김수철에게 주열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보냈다. 뒷날 그는 4·19를 촉발한 고려대 데모의 선동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산시민들에게도 고마운 정을 담아 편지를 보냈다.

마산시민 여러분! 중고등학생 여러분!

대단히 미안합니다. 자유당에 억눌려서 마산에 가지 못하고 남원에 앉아 신문으로 잘 보고 있었습니다. 이곳 남원에서는 말도 못하고 지냈 습니다만 서울로 갈 예정입니다. 집안 일이 복잡하고 주열의 부친 병환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꼭 갈 예정입니다. 주열의 49재는 남원 절에 가서 지낼 예정입니다. 날씨는 음력 4월 초파일입니다.

못 오시더라도 죽은 사람을 위해 축원이나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권찬주



주열은 해방을 한 해 앞둔 1944년 가을 남원군 금지면(金池面) 옹정리(甕井里)에서 태어났다.

금지면은 남원에서 삼십 리 남쪽에 자리 잡은 고을로 남원 유일의 평야지대이다. 남원으로 가는 삼십 리 국도는 지당고개라는 작은 턱이 하나 있을 뿐 한숨에 굴러갈 수 있는 평지길이다. 백 리를 흐른다는 넓은 내, 요천(蓼川)이 마을 앞을 지나고 고리봉 너머 서쪽으로 장대한 섬진강이 감싸 돌아 고래로 땅이 비옥하였다. 요새는 딸기와 포도를 주로 재배하는데 이곳 금지땅 작물이 나가면 전국 시세가 내려간다고 이를 정도다.

주열이 태어난 옹정리는 금지면의 면 소재지로 면 사무소와 학교, 농협, 병원이 있는 큰 마을이다. 한때 마을 가구수가 350호를 넘은 때도 있었다. 서당골목이라는 데는 맑고 시원하며 흑한 가물에도 물줄기가 끊이지 않는 샘이 있다. 이 샘의 생김새가 향아리(甕) 속에 또 향아리 하나가 들어앉은 형국이라 하여 독우물이라 불렀다. 이 샘의 이름을 한자말로 따서 마을 이름도 '옹정리'라 하였다. 지금은 마을이 둘로 나뉘어 동쪽을 금정리(金井里), 서쪽을 석정리(石井里)라 부른다. 주열이 나고 자란 곳은 금정리 독우물이 있는 서당골목이었다.

주열은 아버지 김재계(金在桂)와 어머니 권찬주(權燦珠) 사이에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집안은 밥상을 다섯 개나 차려야 하는 대가족이었다. 위로 조부모가 계셨고 장가 안 간 삼촌이 둘이나 있었으며, 손위 두 누이를 낳은 큰어머니도 함께 살고 있었다. 손위 남매로는 영

자, 경자 두 누이와 형 광열이 있었다. 아래로는 10년, 12년 터울을 지며 택열, 길열 두 동생이 태어났다.

주열의 집안은 천석꾼으로 유명한 부잣집이었다. '김부잣집 하면 인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마을 앞 기름진 들판에 옥답이 50마지가 넘었다. 일꾼도 큰머슴, 작은머슴, 꼴머슴 하여 늘 두셋은 두고 농사를 지었다. 광이 부족하여 마당에다가 노적가리를 두 군데나 만들어 곡식을 보관했다. 집터도 인근에서는 가장 넓은 380여 평에 이르렀다. 큰 안채가 한 동, 정원과 출입문이 따로 달린 별채가 또 하나 하여 아홉 칸 집이었다. 안채와 별채에 방만 합해도 여섯 개나 되었다. 지붕을 일 이엉을 엮노라면 장정들이 며칠을 엮어야 했다.

조부 김태중(金泰鍾)은 해방되고 어지러운 혼란기에 면장에 봉직할 정도로 인근에서 덕망이 높기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였다. 독우물 위쪽으로 오두막을 짓고 사는 가난한 농민들이 많았는데 조부는 새벽에 몰래 머슴을 시켜 보리짚을 돌리곤 했다. 마을에 농우(農牛)를 한 마리 들여서 쟁기질에 쓰게 하였다. 이렇듯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제 집안사람들처럼 돌봐서 주민들이 그 덕을 기리어 청덕비(淸德碑)를 세워주었다. 해방공간과 전쟁을 겪으면서 지역의 유지들과 부농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어나갔지만 그의 집안이 전혀 액을 안 탄 것은 조부가 쌓은 공덕 덕택이었다.

아버지 김씨와 어머니 권씨는 모두 보통학교를 졸업하여 당시로서는 꽤나 배운 사람들이었다. 부모의 나이 차는 스무 살 가까이 나서

할아버지 김태중의 덕을 기리는 청덕비.  
1937년 봄, 마을 어귀에 세워졌다.



김주열의 생가 안채

주열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이미 마흔이 넘은 장년이였다. 그는 키가 흰칠한 미남에다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일제 때 징용에 안 끌려가려고 기르기 시작한 수염이었다. 아버지는 조합장을 역임하고 학교 사친회장도 맡는 등 활동이 활발한 편이었다. 어머니 권씨는 경남 함양 사람으로 이웃에서 ‘함양댁’이라 불렸다. 미모가 출중하고 가무에 능했으며 웬만한 남정네는 말도 못 붙일 만큼 야무졌다.

주열이 어린 시절 유모였던 이한옥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주열의 태몽은 아주 괴이했다고 한다. 전투기가 처마 앞으로 날아와서는 돈주머니를 던져 주는 것을 어머니 권씨가 치마폭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인 때라 그런 꿈을 꾸었는지 모른다. 주열은 김씨 집안 사람들답게 또래들보다 키가 큰 편이었다. 특히 발이 상당히 커서 두 살 위 형하고 고무신 문수를 같이 신을 정도였다. 얼굴이 넓적하고 굵어서 집안사람들이 별명을 ‘넙적’이라 불렀다.

주열의 집에는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사랑방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손님으로 북적거렸다. 마당에는 이웃 이십여 세대가 길어다 먹는 우물이 있었다. 몇 년에 한번씩 머슴들이 우물을 소제하느라 물을 푸면 금붕어가 나오기도 하는 우물이었는데 이웃 아낙들이 물동이를 이고 수시로 드나들었다. 그러면서 자연 우물과 부엌은 동네 여자들의 얘기 터가 되었다. 또 공부방에는 광열, 주열 형제의 친구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놀다 가곤 했다. 밥으로 지어낸 쌀이 한 달에 세 가

마니가 될 때도 있었다. 식량이 축나는 것을 집안 사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이웃들의 호구를 그런 식으로 챙겨주었던 것이다.

주열의 집에는 주위에는 없는 신식 물건들이 많았다. 시계와 라디오는 물론이고 일제 미싱도 두 대나 있었다. 아버지 방에는 유성기가 있었는데 명절이나 되어야 아이들에게 유성기를 내주곤 했다. 할아버지 방의 광에는 파랗고 노랗고 하얀 눈깔사탕과 박하사탕이 떨어지지 않아 그걸로 손자들을 불러들이곤 했다.

어린 주열을 주로 업고 키운 사람은 국민학교에 다니는 큰누이 영자였다. 영자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면 동생 주열을 업고 놀았다. 워낙 순해서 돌보기에 힘들지 않았다. 비록 어머니가 다르지만 주열은 두 누이를 많이 따르고 누이들도 귀여워했다. 두 누이는 외출할 때마다 주열을 깔끔하게 차려 입혀서 데리고 다니길 좋아했다. 형 광열과 주열은 성격이 사뭇 달랐다. 형은 성격이 활달하여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느라 늘 소나무 냄새를 풍기고 들어와 두 누이가 옷을 털고 들어오게 했다. 그에 비하면 주열은 있는 듯 없는 듯했다. 말수도 적어 과묵한 편이었다. 그렇다고 어두운 성격은 아니었다.

주열을 가까이에서 돌봐준 이가 또 있었는데 독우물 윗마을 오두막에 사는 ‘동촌댁’이라 부르는 이한옥 아주머니였다. 남편 원씨는 달구지꾼으로 어렵게 살았다. 그녀는 어머니 권씨와 호형호제하며 흥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다. 집을 드나들며 부엌일도 돕고 주열의

유모 역할도 하곤 했다. 주열도 동촌댁을 많이 따라 어머니라 불렀다.

주열은 말을 떼면서 그녀에게 곧잘 말하곤 했다.

“어머니, 어머니. 우리 집에 내려와서 같이 살어. 방도 많으니까 우리 집에서 살자, 응?”

어린 마음에도 작은 오두막에 사는 동촌댁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었다. 그 집에는 주열이보다 어린 형제들이 살았는데 주열은 감나무에서 감을 따서 나눠 먹곤 했다.

어느 가을 저녁에 동촌댁이 눈에서 거둔 나락을 머리에 이고 집 앞을 지나가는데 주열이 붙잡았다.

“그거 우리 눈에 갖다 놓고 가. 집에까지 어떻게 이고 가?”

그러면서 밤새 자기가 안 자고 나락을 지켜주겠노라고 했다.

“아이고매, 성님 야 야그하는 것 좀 들어보시오.”

동촌댁은 흐뭇해서 어머니 권씨에게 말했다.

권씨도 동촌댁을 대하는 게 주열이 못지않았다.

“동생, 뒤에 혹시 이 집을 팔면 그땐 동생한테 주마. 친동기가 주라고 해도 안 주고 동생한테 줄라네.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

뒷날 실제로 이 집은 동촌댁이 사서 살게 되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주열이도 그렇고 어머니 권씨도 그렇고 두 사람 말대로 되고 말았지.”

여든이 넘은 동촌댁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가족사진(시계방향으로 형 광열, 주열, 큰누나 영자, 작은누나 경자)

주열이 마을에 있는 용정국민학교에 입학한 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이였다. 다른 아이들보다 1년 빠른 일곱 살 때였다. 학생도 사십 명 남짓해서 한 반밖에 꾸려지지 않았다. 개교한 지 4년밖에 안된 학교라 시설도 제대로 갖춰진 게 없었다. 책상과 의자도 없이 학생들은 방석을 깔고 흙바닥에 앉아서 공부했다. 교사(校舍)를 더 짓느라고 동네 어른들이 운동장에서 흙벽돌을 찍으면 어린 학생들이 나르는 부역을 하곤 했다. 운동장이 낮아 적은 비에도 늘 질척거렸다. 그래서 학생들은 등갯길에 흠을 한 줍씩 가져와 운동장에 뿌려야 했다.

비가 내리면 덜 마른 흙벽돌을 운동장 가에 있는 아릅드리 팽나무와 버드나무 밑으로 옮겨야 했다. 버드나무 그늘에서 주열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에 뒤척일 때마다 하늘이 잘게 부수어졌다가 굵은 빗방울을 후두둑 쏟아놓곤 했다. 그 후로 주열은 버드나무 그늘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기를 즐겨했다. 버드나무 아래에 서면 바람도 보이고 햇빛도 더 잘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열은 뭔가 아련한 설움이 목젢으로 치미는 느낌을 받곤 했는데 그것이 싫거나 좋은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를 그곳으로 이끌곤 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전쟁이 터졌다. 어린 주열은 전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생전 처음 보는 비행기가 요란한 굉음을 내며 기차길 위로 날아서 산을 넘어가는 광경을 보고 '야! 이것이 전쟁이구나' 생각했다. 산 너머에는 일제철교라 부르는 금곡교가 있었는데 아이들

은 인민군 썩썩이가 그곳에 포탄을 투하하러 가는 거라고 했다. 주열도 그 다리에 눌러 가본 적이 몇 번 있었다. 소풍을 간 적도 있었고, 아랫집 종봉과 종용 쌍둥이 형제를 따라 그곳까지 놀러가기도 했다. 쌍둥이 형제는 철길 전신주에 돌을 던져 애자(전선을 지탱하고 또 절연하기 위해 지주 등에 다는 사기로 만든 기구)를 깨고 놀았다. 주열은 이제 그 애자가 다 깨져 없어지고 말겠구나 생각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니 머슴들이 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큰머슴이 구덩이 안에서 흠을 퍼 삼태기로 올려주면 작은머슴이 텃밭으로 옮겨다 쏟곤 했다. 입구는 좁으나 안은 제법 널찍했다.

“이게 뭐다요?”

“도련님 방이제 뭐여.”

작은머슴이 말해 놓고 씩 웃었다.

“썩썩이가 뜨문 날래게 숨는 방공호라는 것이여. 썩썩이가 월매나 무서운지 알아? 폭탄을 뿌레노른 집채만 한 것이 가뭇없이 사라진다고.”

구덩이 안에서 큰머슴이 말했다. 그는 서른여섯 먹은 애아범이었는데 징용으로 전장에 다녀온 사람이었다.

구덩이가 다 파지자 머슴들은 뒷동산에서 솔가지를 베어다가 입구를 덮었다. 감쪽같이 나뭇단이 쌓인 곳으로 둔갑했다. 그날 이후로 썩썩이 소리만 나면 온 식구들이 그곳으로 피신했다. 다른 집들은 뒷동산 동굴로 몸을 숨긴다고 했다.



두 누이와 식모아이 정희는 구렁이에만 들면 울음을 터뜨렸다. 작은누나는 구렁이에 구렁이가 산다고 했다.

“뭘 구렁이가 산다고 그러냐?”

할머니가 타박이라도 할라치면 작은누이는 오만상을 찡그리며,

“참말로 이따만한 구렁이를 봤다니께.”

하며 팔을 한껏 펼쳐보이곤 했다. 그럴 때마다 주열은 무서워서 큰누이 품으로 파고들었다.

어느 날은 온 집안 식구들이 짐을 싣다. 머슴들은 쌀가마니와 미숫가루를 지게에 졌고, 여자들은 솜이불이며 비단을 이었다. 그것은 큰누나 영자가 장차 시집갈 때 쓸 혼수로 장사꾼한테 한 감씩 사서 모아둔 것이었다. 열네 살 큰누이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살림을 돌보고 있었다. 옛사람들이 그랬듯 아버지는 엄하고 보수적인 분이였다. 여자는 공부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두 누이를 중학교에 진학시키지 않았다. 그때 누나 영자가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주열이도 옆에 앉아 훌쩍거렸다.

조부모와 아버지만 남고 식구들은 독우물 너머 뒷동산으로 넘어갔다. 뒷동산을 가로지르면 툭 트인 들이 나왔고 다시 소나무 숲이 이어졌다. 숲 끝에 동산너머(後澗)라는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을 지나면 다시 숲이 나왔는데 그들은 그곳으로 두 시간을 걸어갔다. 논길을 걸을 때 비단을 인 식모아이가 그만 발을 헛디더 질퍽한 눈 수렁으로 엎어져 큰누이는 발을 동동 굴렀다.

숲을 한 시간이나 걸어들자 초막이 나왔다. 주열네 땅을 부쳐먹는 일가 소작농의 집이었다. 농부는 마당에 큰 솔 하나를 걸어두고 피난민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낼 초막이 워낙 남루한데다가 언제 돌아갈지 기약할 수 없어서 다들 표정이 어두웠다.

그날 밤 주열은 오줌이 마려워 자다가 일어났다. 조그만 방에는 많은 식구들이 뒤엉켜서 잠들어 있었다. 옆방에서는 머슴이랑 남정네들 코고는 소리가 요란했다. 누군가를 깨워서 함께 가야 할 것 같았다. 형을 깨웠다가는 보나마나 짜증을 낼 것이다. 누나들은 잠들기 전부터 부엉이 소리가 무섭다고 뒤척였다. 오줌이 곧 쏟아질 것 같아 끽끽거리는데 부스럭대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열이냐? 오줌 마려운 게로구나.”

어머니는 일어나 비너를 매만졌다.

깊은 산 속이었지만 달이 떠올라 별로 어둡지 않았다.

“저기 나무 밑에다가 누거라.”

어머니는 툇마루에 쪼그려 앉아 길게 하품을 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달빛을 축축하게 적시는 것 같았다. 마당가 나무 밑에다 주열은 오줌을 누었다. 무심코 고개를 들었더니 무성한 나뭇잎들이 하늘거리고 있었다. 낮에는 미처 보지 못한 버드나무였다. 야기(夜氣)가 나뭇잎으로 흘러내렸다. 잎새 사이로 달빛이 야울거렸다. 부서지는 달빛이 얼굴에까지 내려와 간질이는 것 같았다.

“엄마.”

그는 서러워져 얼른 엄마 있는 데로 뛰어갔다.

“왜 그랴? 엄마가 여기 있는디 무섭냐?”

주열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난 버드나무만 보면 맨날 눈물이 나올라고 그래.”

“원, 어린 게 벨 소리를 다한다. 무섭지 않고 눈물이 나올라 그래?”

주열이 고개를 끄덕이자 어머니는 주열이를 품으로 끌어다가 토닥여 주었다.

“이제 다 컸구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밤하늘로 고개를 세워 한숨을 쉬었다.

이튿날 마을에서 전갈이 와서 가족들은 마을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중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전쟁터로 가버렸다는 소식이 들렸다.

며칠 뒤 저녁에는 산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방 안에서 꼼짝 말고 있으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총과 죽창을 든 사내들은 죽히 스무 명도 넘어 보였다. 그들은 마당에다가 명석을 깔고 마당 한 편에다가 가마솥을 걸어 밥을 지어먹고 돌아갔다.

그런 기억들로 한 해가 저물었다. 주열은 다시 학교에 나갔다. 더러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다. 인근 중학교에서는 선생님도 전쟁터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시

웃음을 찾았다. 철로까지 달려가 숨바꼭질을 하고 운동장에서 자치기를 했다. 뒷산으로 토끼몰이를 하러 몰려다니기도 했다. 겨울이 깊어 눈이 많이 왔다. 주열은 아이들 틈에 끼여 마을 들판 가운데 있는 물레방앗간 근처로 썰매를 타러 다녔다.

이듬해 정월 초에 할아버지가 일흔셋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어른들의 곡소리가 집밖까지 들렸다. 할아버지는 안방으로 옮겨져 병풍 뒤에 모셔졌다. 주열은 별채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광 미닫이를 열었다. 인삼과 꿀이 있고, 사탕그릇이 보였다. 주열은 눈깔사탕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안방으로 달려갔다. 병풍 뒤로 달려가려는 것을 어른들이 붙잡았다. 주열이 처음으로 겪는 죽음이었다.

할아버지 방으로 막내삼촌이 들어가 살았다. 선모 삼촌은 서른두살의 독신이었다. 그는 일찍이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었다. 전문대를 졸업한 양조장집 딸과 오래 전에 약혼까지 했으나 파혼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렸다. 가끔 그는 병어리처럼 침묵하던 입을 열어 말하곤 했다. 자신은 대통령보다 유식하다고.

그는 방에서 통 나오지 않았다. 온종일 책을 읽거나 기타를 치며 혼자 지냈다. 밥도 그의 방에서 혼자 먹었다. 큰누이가 밥상을 차려다 툇마루에 올려두면 그는 우물가로 나와 손을 씻고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시 마루에 밀어 내놓는 밥상에는 언제나 가운데만

떠먹고 만 밥그릇이 놓여 있곤 했다. 그릇에 독약이 묻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였다. 그는 밤이면 냇가로 나가 미역을 잡고 돌아왔다.

가족들 누구도 그의 방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외출할 때는 자물쇠로 채우고 나가곤 했다. 누이들이 문틈으로 몰래 방안을 들여다보곤 벽면 하나가 책으로 뽁뽁하다고 알려 주었다.

가끔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여선생이 찾아와 그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가곤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사랑하기에는 너무 골이 깊었던지 이내 여선생의 발길도 뜸해졌다. 어린 주열에게 막내삼촌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였다. 삼촌을 볼 때마다 인생의 비애 같은 게 느껴지곤 했다. 1975년 10월, 삼촌은 논산으로 이사했다가 절로 들어갔고 이후 가족들과는 소식이 끊겼다.

여름이 되면 주열은 동무들과 어울려 요천에서 낚을 보냈다. 떡을 감으며 놀다가 심심해지면 물고기를 잡았다. 큰 돌로 물 속의 바위나 돌을 내려치면 피리, 은어 같은 물고기들이 기절해서 떠올랐다. 이를 동무들은 ‘돌로 벼락친다’고 했다. 가끔 발밑으로 참게가 밟혀 잡기도 했다.

그때는 아이들도 들일을 하고 나무하러 다니느라 바빴다. 주열도 가끔 나무하러 가는 머슴을 따라 비웅재나 성터로 따라가기도 했다.

3학년 겨울이 찾아오자 교실에 무쇠 난로가 설치되었다. 지연자라는 처녀 선생님이 1학년부터 줄곧 답임을 맡고 있었다.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다.

“여러분, 이제 겨울 동안 난로를 해야 합니다. 뭐가 필요하지요?”

“땀감이요.”

누군가 ‘고구마’라고 대답해서 아이들은 웃었다.

“그래요. 땀감이 필요해요. 내일 학교에 올 때는 장작 하나씩 들고 오는 것 잊지 마세요. 숙제예요.”

이튿날 담임선생님과 반 친구들은 주열이 때문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주열이 지게를 진 머슴을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장작이 한 짐이었다. 주열의 아버지가 보낸 것이라고 했다.

책상과 의자를 놓고 공부를 시작한 건 4학년 때부터였다. 그동안 흙벽돌을 찍고 나른 노고가 마침내 빛을 보아 그럴듯한 교실이 지어졌고, 거기에 책상과 의자가 놓이게 되었다. 바닥에서 공부할 때는 짝꿍이라는 게 없었는데 의자에 앉고부터는 짝꿍도 생기게 되었다. 주열의 짝꿍은 입암 마을 출신의 박의박이라는 학생이었다. 둘 다 키가 훌쩍 크고 집안 형편이 비슷해서 금방 친해졌다. 어느 날 주열이 손가락 마디만한 탄피 두 개를 가져와 그 중 하나를 짝꿍에게 내밀었다.

“요게 어디서 났다냐?”

“응, 쌍둥이하고 금곡교에 놀러갔다가 다리 밑에서 주웠어야.”

주열은 몽당연필을 탄피에 끼워 넣었다. 그럴듯했다. 친구 의박도 주열처럼 몽당연필을 탄피에 끼워 넣었다. 둘은 꽤 친하게 지냈다. 서로 집을 오가며 숙제도 함께 했다. 중학교를 갈 때 의박이 여수로 전학을 가는 바람에 헤어지게 되었다. 우정을 변치 말자고 주열이 손

가락을 내밀었다.

“잊지 말고 편지해야 쓴다이, 꼭?”

“알았어. 가자마자 꼭 편지할게.”

주열은 국어와 산수 과목 성적이 좋았다. 특히 작문에 남다른 소질을 발휘하여 6학년 때에는 문예부에서 꽤 열성적으로 활동하였다. 그건 내향적이고 예민한 천성도 천성이지만 누이들의 영향이 컸다. 집에는 다양한 책이 많아서 누나들은 늘 책을 끼고 살았다. 동서고금의 위인전기류와 홍길동전, 춘향전, 장화홍련전 따위의 판소리 소설은 물론이고 한창 유행하는 연애소설이 마을에 들어오면 구해다가 읽곤 했다. 당시에는 아주 귀한 그림 이야기책 ‘딩킨’을 주열네 집에서 빌려다 읽었다는 하용용의 증언에서도 주열네 집에 책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열도 누나들처럼 늘 책을 끼고 지냈다. 머슴들이 일손이 바빠 쇠죽을 끓일 수 없을 때는 주열이 아궁이 앞에 앉곤 했는데 그는 불을 때며 늘 책을 읽었다. 아홉 살부터는 눈에 나가 새 보는 일도 곧잘 하였는데 그때도 책을 가지고 나갔다.

6학년 때 주열은 보름 동안이나 결석을 했다. 당시 시골에서 6년 개근상을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였다. 정국도 혼미했을 뿐 아니라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걸핏하면 결석을 하곤 했다. 졸업할 때 사십 명 남짓한 동기생들 중에서 개근상을 받은 학생은 양조장집 외손녀 이인화 단 한 명뿐이었다.

그러나 주열은 다른 학생들보다 형편이 나아 가사노동에 덜 시달

리는 편이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워낙 교육열이 강해 아이들이 결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열은 6학년 때 보름을 결석했다. 생활기록부에는 결석 사유가 가사형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어느 누구도 당시 주열이 왜 결석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름 동안이나 장기결석을 했다면 무슨 곡절이 있을 게 틀림없다. 아마 그 무렵에 늑막염을 앓지 않았나 추측해볼 뿐이다.



짧은 생애와 삶

청운의 꿈을 품고

주열은 마을 외곽에 있는 금지중학교에 입학했다. 교무실 하나에 교실이 셋 달린 작은 학교였다. 회갑년이 가까운 아버지는 심장이 좋지 않아 바깥출입을 삼가고 집에서 지내다시피 했다. 큰누이도 결혼을 해서 남원 시내로 나가 살았다. 의지하던 누이가 시집을 가고 나니 주열은 집이 텅 빈 것 같았다. 주열 밑으로 어린 동생이 둘이나 더 태어났다. 택열이 이제 겨우 세 살이었고, 막내 길열이 그 해 11월에 태어났다. 형 광열과 늘 나누는 얘기가 형편이 어려워져 가는 집안 걱정이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버지마저 병으로 누워서 집안 형편이 많이 나빠져 있었다. 벌써 마을 앞 너른 논도 팔아버렸다. 어머니 권씨가 들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세가 기울고 있었다.

어머니 권씨는 중학생이 된 두 아들을 앉혀 놓고 말했다.

“너희들은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 상급학교는 보낼 테니까. 기죽지 말고 뜻을 크게 품어라.”

어머니 말대로 주열은 열심히 공부했다. 형 광열이 남원고등학교에 진학했다. 형은 남원에 시집가 사는 큰누나 집에서 학교를 다녔다. 주열은 답답하면 두 시간 넘게 걸어 남원으로 넘어가곤 했다. 형 광열에게는 동네 단짝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장상규와 하용웅이 그 들이었다. 어려서부터 늘 주열네 공부방에 모여 함께 공부하고 놀더니 다같이 상급학교에 진학했다. 하용웅은 마산상고로, 장상규는 남원농고에 들어갔다. 중학생이 되면서 주열도 곧잘 이 형들과 어울려



지냈다. 부쩍 어른스러워진 주열을 그들은 친동생처럼, 또는 친구처럼 대했다. 이 형들이 놀고 공부하는 방식이 주열에게는 늘 사표가 되었다. 특히 하용용이 주열을 귀여워했다. 항상 포부를 갖고 성실히 사는 주열은 그에게 더없이 미덥고 귀여운 존재였다.

3학년울 몇 달 남기지 않은 10월이었다. 주열은 가을햇살이 쏟아지는 금지길을 친구 김재구와 나란히 걸었다. 섬진강 다리 밑 모래사장으로 소풍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두 학생은 학도호국단 벨빵과 완장을 차고 있었다. 재구는 송동면 연산리가 고향으로 송동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수재였다. 그는 학도호국단 소대장을 맡고 있었고 주열이 분대장이었다. 재구는 다리도 없는 요천을 건너서 학교에 다녔는데 물이 불어 어른들도 꺼리는 장마철 요천을 필사적으로 건너 학교에 오는 당찬 친구였다. 겨울에는 바지를 걷어올린 채 그 시린 물 속을 걸어 학교로 왔다. 그런 친구라 평소 주열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곤 했다.

“주열아, 니 진주고에 원서를 냈다면서야?”

“음, 그란디 어쨌게 될 중 몰겠다. 아버지가 자꾸 가까운 남원농고로 가라고 하신다. 난 좀더 큰 데로 나가서 공부하고 싶은디.”

주열은 한숨을 푹 쉬었다. 평소 과묵한 편인 주열도 재구 앞에서만은 흥금을 털어놓았다.

“니는 어디를 가든 잘할 거여. 나넌 니가 늘 부럽다.”

재구가 주열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금지중 학교 졸업사진(맨 뒷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김주열)

“부럽긴 뭐가 부럽다는 거냐. 나는 공부도 공부지만 뭇보다도 배포가 크잖냐. 새나라의 역꾼 어찌고 저찌고 하는 말 들을 때마다 난 널 두고 하는 말 같어야.”

두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웃었다.

“나는 니네 집을 갈 때마다 풍기는 분위기가 참 좋드라.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여느 부모님들하고 달라서 여유롭고 기쁨이 있지. 누나들은 곱고……. 뼈대있는 가문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막 들어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가난하잖냐? 난 중학교에 올 형편도 못됐어. 하도 담임선생님이 찾아뵙기면서 아깝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할 수 없이 보낸 거지. 내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냐?”

재구는 실제로 어깨에 뭔가를 짊어진 사람처럼 으쓱해 보였다. 그런 그를 바라보며 주열이 물었다.

“그나저나 너는 진학을 어쩔 생각이냐?”

“남원농고 가겠다고 어제 선생님하고 상담 끝냈다. 장학생으로 갈 수 있디야. 야, 주열아! 우리 으디로 가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니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집안 좀 확 일으켜 세워볼자.”

재구가 손바닥을 번쩍 치켜들었고, 열적게 웃으며 주열도 손바닥을 마주쳤다.

그해 금지중학교를 3등으로 졸업한 주열은 진주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완고했다. 집안 형편상 유학은 힘들다는 거였다. 남원농고에 장학생으로 진학하여 집에서 통학하길

원했다.

“우리 형편에 하숙을 시킬 수도 없고 그 먼길을 어떻게 다니겠다는 거냐? 너는 네 막내이모 집을 생각하는 모양이다만 무작정 그렇게 신세질 형편도 아니지 않느냐?”

자식 욕심이 웬만한 어머니도 주열을 설득했다.

“니 뜻은 알겠지만 일단 내년에 니 형이 대학을 가야 하지 않겠냐? 보다시피 둘 다 유학을 보내놓고 뒷바라지할 형편은 못 되고. 그러니 니가 좀 물러나거라. 대신 네 대학갈 때는 무슨 수를 내서라도 뒤를 대주마. 엄미는 서울로 이사라도 가서 돈벌이를 해볼 생각도 하고 있다.”

“뭘 소리가 그리 길어!”

아버지는 가슴을 손바닥으로 누르고 역정을 냈다. 예전에 서울로 집을 옮길 생각으로 두 내외가 상경해서 이것저것 알아보았지만 여의치 않아 다시 내려온 일이 있었다. 어머니는 가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넌처럼 내놓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역정을 냈다. 몸이 아파 무능력해진 자신을 못 견뎌 하는 것 같았다.

주열은 졸업식에서 3년 개근상을 받았다. 3년 개근상을 받은 학생은 김주열과 양조장집 외손녀 이인화 둘뿐이었다.

형 광열이 3월말 춘기방학(봄방학)을 맞아 형제는 마산 외조모 댁으로 갔다. 마음이 답답해서 주열이 따라나선 길이었다. 마산에서 하용옹을 만났는데 마침 담임선생 집에 가는 길이라고 함께 가자고 해서 형제가 따라 나섰다. 총각선생은 산호동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선생은 하용웅을 아껴서 집으로 불러 공부도 보살피 주고 하는 눈치였다. 형 광열과는 안면이 있는지 반갑게 맞아주었다. 광열이 주열을 동생이라고 소개했더니,

“니가 그 공부 잘한다는 주열이구나. 인물이 좋구나. 키도 커서 어디 다니면 동생으로 보겠냐?”

하며 사람 좋게 웃었다.

“그래, 중학교에 다닌다고 했던가?”

주열이 대답을 주저하자 하용웅이 대신 대답했다.

“이번에 중학교를 졸업해서 진주고등학교에 붙었는데 가기 힘들어진 모양입니다.”

“그래? 형편 때문이냐? 어떻게 하려느냐?”

“남원농고에 들었습니다.”

주열이 대답했고,

“아무래도 장학생으로 가니까 한결 힘은 덜었습니다.”

하고 옆에서 광열이 덧붙였다.

“거기도 좋기는 하다만 아무래도 공부는 인문계보다 덜 하겠지……. 그래, 장래 희망이 뭐냐?”

선생이 다시 물었다. 주열은 잠시 뜬눈을 들었다 답했다.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옆에 앉은 두 형이 놀라서 쳐다보았다. 그들은 주열이 문학을 꿈꾸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즈음 주열은 막연히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자니 안정된 직업인 교사가 되었으면 싶었다.

“어쨌든 어디서 공부하든 열심히 해라. 이제 이 나라는 너희들이 이끌어야 해. 우리 세대에겐 너희들이 희망이다. 나는 용웅이가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모른다. 집안이 어려운데도 아주 깨끗하게 살거든.”

선생은 하용웅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용웅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돌아오는 길에 용웅이 말했다.

“주열아, 가고 싶은 학교 못 갔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라. 너는 잘 해낼 수 있을 거다.”

이듬해 그는 친구 재구와 함께 남원농고로 진학했다. 한 동네 사는 장상규 형이 그 학교 3학년이 다니고 있었다. 아침이면 삼십 리 금지 길을 새벽밥을 먹고 다녔다. 장상규 형은 자전거로 통학을 했는데 몇 달 동안 주열을 뒤에 태우고 다녔다. 남원 사는 큰누이 집에는 이미 형 광열이 들어가 지냈으므로 빠듯한 살림에 주열이까지 얹히기도 힘들었다. 더구나 누이는 올해 정월에 첫 딸아이를 낳았던 것이다.

주열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자신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는데 학교 수업은 실습이 많았다. 대학 진학 공부는 따로 해야 했다. 그는 라디오 방송교재 중학강의를 구독하며 독학했다. 자연히 학교를 빠지는 날이 많아졌다. 학기 말이 가까워지면서 그는 아예 등교를 하지 않았다. 형 광열이 여름방학을 하자 주열은 함께 마산 외 조모 덕으로 놀러갔다.

다시 하용웅을 만났고 그들은 산호동 바닷가를 걸었다.  
 “학교는 다닐 만하냐?”  
 하용웅이 묻다 말고 손을 내밀어 주열의 턱을 쓸었다.  
 “이 녀석 보게, 수염이 시킴시킴하잖아.”  
 하용웅이 웃으며 말했는데 주열은 웃지 않았다.  
 “용웅 성, 나 학교 그만뒀어.”  
 “왜?”  
 하용웅이 깜짝 놀라서 주열을 쳐다보았다.  
 “지난번에 상규 만나서 듣자니 잘 다닌다더니 왜 그만둔 거냐?”  
 “생리에 안 맞아. 대처로 나가 맘껏 꿈을 펼쳐보고 싶어. 서울에 있는 학교로 진학했으면 하는 생각이야. 서울고도 좋고 또 다른 학교도 알아보고 있어.”  
 “그랬구나. 아무튼 용기가 대단한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냐?”  
 “아직 말 못했어. 아마 노발대발하시겠지?”  
 주열은 긴 한숨을 쉬었다. 하용웅은 이렇듯 얼굴이 어두운 주열을 처음 보았다.  
 “주열아, 힘 내라. 부모님한테 솔직히 말하면 못 도와주실 분들도 아니잖니.”  
 “아버지 병세가 더 안 좋아지셨어. 집에 있는 게 괴로워. 출세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싶어.”

김주열이 남원농고 시절 쓰던 공책 표지



남원농고에 입학한 1959년 4월 광한루 총훈탑 앞에서(가운데가 김주열, 왼쪽은 김재규)

“너나 광열이나 참 힘이 부치구나.”

“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돈을 벌고 싶어.”

주열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아무튼 해볼 테야. 성은 날 믿지?”

“그럼, 넌 뭐든 해낼 거야.”

하용웅이 주열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남원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학교에서 장기결석으로 퇴학처분이 내려  
다는 통지서가 날아와 있었다. 예상대로 아버지는 노발대발했다.

“이게 도대체 뭘 말이나? 왜 학교를 그만둔 거냐?”

주열은 무릎을 꿇고 앉아 대답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년엔 서울에 있는 교통고등학교에 갈랍니  
다. 거기는 합격만 하면 모든 걸 다 관비로 대준답니다. 졸업하면 자  
동으로 철도청에 들어가는, 장래가 보장되는 학입니다.”

주열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화를 누그러뜨렸다. 주열의 의지가 워  
낙 강하고 진지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다 합격해놓은 학교를 포  
기하게 만든 아버지의 심정이 편치 않은 터였다.

주열은 집에 들어앉아 시험 준비를 했다. 전국에서 수재들이 몰려  
드는 학교라 경쟁률이 치열했다. 아버지는 집에 들어앉아버린 아들  
을 못 본 척 묵인해 주었다. 공부를 하다가 답답하면 주열은 남원 시  
내로 나갔다. 누나가 낳은 딸 윤경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 더러  
학교가 끝나고 나오는 재구나 상규 형을 기다렸다가 광한루로 산책

을 가곤 했다. 북문으로 들어 오작교를 건너면 그 끝에 버드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주열은 그 그늘이 좋아 늘 그 아래에서 쉬었다가  
가곤 했다.

시간은 흘러 12월이 되었다. 시험은 내년 2월에 있을 예정이었다.  
얼추 과목별로 시험공부가 끝났는데 독학으로 하다보니 영어과목에  
자신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미리 상경했으면 하는 뜻을 비쳤다.  
195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주열은 어머니와 함께 서울행 열  
차에 몸을 실었다.



짧은 생애와 삶  
서울에서 보낸 겨울 한철

서울 서대문에 고종사촌형 장기환이 방을 얻어 지내고 있었는데 주열은 그곳에서 머무르기로 했다.

당시 주열의 서울 행적은 매일 일기 쓰듯 간략하게 기록한 노트를 통해 대충 짐작할 수 있다. 그의 노트에는 학원 등록금 2천 환, 교재 2백 환, 차비 40환, 우표 40환, 김 50환, 양초 20환 등 거의 가계부를 연상시키는 내용들로 가득한데 이는 평소 그가 얼마나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였는지 짐작케 한다.

연말을 보내고 주열은 새해 1월 2일에 종로 YMCA학원 고교입시 영어반에 등록했다. 그는 매일 종로의 학원까지 걸어 다녔다. 처음 며칠 동안은 복잡한 서울에 어리둥절했는데 이제는 웬지 숨통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사람 사는 세상에 온 것 같았다. 아마 이런 기분 때문에 요즘 갑자기 고향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올라 오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머니도 드리내놓고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서울 공기를 쐬고는 한결 표정이 나아졌다. 아버지의 병간호에 오랫동안 시달린 어머니로서는 간만에 취하는 휴식일 것이었다. 1월 7일 어머니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어쨌든 몸 성해야 쓴다. 밤길 돌아댕기지 말고, 연탄가스 조심하고, 얼음길 땀길 때 손 빼고 땀기고…….”

어머니는 마음을 못 놓아 당부의 말을 끊임없이 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고 며칠 동안 주열은 향수병에 시달렸다. 처음으로 집과 부모형제를 떠나 홀로 지내는 것이었다. 주열은 고향집에 편

지를 썼다. 부모님이 걱정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던 것이다. 아무리  
없혀 지내는 신세지만 기환 형은 직장을 알아보라, 연애하라 바빠서  
주열이 살림을 도맡아 해야 했다. 처음에는 연탄 갈 시간을 못 맞춰  
서 밤새 연탄아궁이에 고구마라도 묻은 아이처럼 쪼그려 앉아 있어  
야 했다. 연탄이 하루에 두 장씩 들었는데 두 장 값이 130환이나 돼  
서 그는 살 때마다 혀를 내둘렀다. 버스비 40환이 아까워서 걸어 다  
니는 그로서는 어머니가 주고 간 용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기도 밤 늦게는 들어오지 않아서 양초를 사다가 밝혀야 글 한 줄이  
라도 읽을 수 있었다. 이래저래 다 돈이었다.

물지계를 지고 비탈길을 내려가 물을 길어오는 일이 주열에게는  
가장 큰 고역이었다. 조금만 중심을 잃어도 빙판길에 넘어져 물을 쏟  
기 일쑤였다. 물지계는 큰방 주인 할아버지네 것을 여러 세대가 함께  
썼는데 노인은 눈 내린 날에는 물지계를 지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물  
한 동이씩을 부탁하곤 했다. 제일 만만한 게 주열이라 물 부탁이 잦  
았다. 그래서 눈이 내리는 날은 한번 더 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주열  
이 알아서 물동이를 채워주곤 했다.

그런 와중에도 주열은 향학열을 불태웠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읽고 싶은, 단테의 『신곡』 등 문학서 목록을 일기장에 적어보기도 했  
다. 그럴 때면 자신이 정말 고등학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  
해지곤 했다.

서울거리는 5월에 있을 대통령선거로 술렁거렸다. 가까운 인사동

에 민주당 당사가 있어서 정치 집회가 자주 있었다. 항간에는 자유당  
이 선거를 조기에 실시하려는 술책을 꾸미고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병으로 몸이 안 좋은 틈을 이용하려는  
속셈이라는 거였다. 이런 열기는 고향 남원과는 사뭇 달랐다. 국민학  
교 시절에 마을사람 조씨라는 이가 국회의원에 나섰을 때 어머니가  
나서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주었던 적이 있었다. 집에 사람들이 들  
끓어서 잔칫집 같았다. 그이는 낙선하고 말았는데 어머니가 어찌나  
속상해 하는지 그때 일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종로에는 기환의 형 장봉수가 ‘미림라샤’라는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고향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가끔  
주열은 학원이 끝나고 양복점에 들러 놀다오곤 했다.

“어이, 남원 대표선수! 시험 잘 준비되고 있나? 서울 아그들한테  
남원의 뽀대를 보여줘부러라이.”

봉수 형은 다림질을 하며 늘 그렇게 인사하곤 했다.

“너 이번 설에 갈 데 없지야? 우리 집에 와서 떡국 먹고 가라. 기환  
이하고 같이 와.”

그리고 보니 설이 28일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서울생활이 벌써  
한 달이 지난 것이다. 봉수 형 집은 미아리에 있었다. 그의 처 경숙은  
한동네 사람이어서 주열에게는 형수라는 호칭보다 누나가 훨씬 익숙  
했다.

설을 쇠러 가기 전에 주열이 연탄을 몇 장 들여놓으려고 가게를 갔

더니 벌써 설을 쇠러 갔는지 문을 닫았다. 미리 연탄을 사두지 못한 게 안타까웠다. 주열은 생각 끝에 주인 할아버지한테 사기로 했다. 할아버지네는 연탄을 수백 장씩 쌓아두고 살았다.

“할아버지, 연탄 살 수 있어요?”

“오냐, 그냥 갖다 때거라.”

“여섯 장이나 필요한 걸요.”

한 사흘은 연탄가게가 문을 열지 않을 거였다. 주열은 할아버지에게 290환을 내밀었다. 고마워서 물을 세 통이나 저다 드렸더니 할아버지는 100환을 내주었다.

설 연휴 이튿날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기어코 병이 악화돼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떠났다는 뉴스가 장안을 뒤집어 놓았다. 조병옥 후보는 선거 조기 실시를 반대한다는 뜻을 단호하게 밝히고 떠났다. 쟁점이 선거 조기 실시로 기울면서 정국이 급격히 혼란스러워졌다.

설 연휴가 끝난 2월 1일 월요일에 주열은 용산에 있는 교통고등학교에 가서 입학원서를 사왔다. 시험날짜는 2월 27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었다. 그 날은 쌀도 떨어져서 230환을 들여 쌀 한 되를 샀다.

그날 학원을 가는데 종로거리가 술렁거렸다. 정부가 5월 농번기를 피해서 3월 15일로 앞당겨서 제4대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주열이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이유였다. 농번기라면 보리 베기에서 모내기까지 이어지는 유월일 거였다. 학원에 들어

섰더니 친구들도 선거 얘기로 시끄러웠다. 영어선생은 대학생이었는데 수업이 시작되자 학원생 하나가 질문했다.

“선생님, 나라가 시끄러운데 대학생 형들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은 거참, 하고 쓰악한 표정을 지었다.

“대학생이라고 별 수 있나……. 학생들도 다 죽었지.”

선생님은 그렇게 대답하고 책을 펴게 했다.

당시 대학생들은 경제난과 졸업 후 취직난 걱정에 찌든데다가 숨막히는 학원의 공포 분위기 때문에 그저 몸조심이나 하자는 보신주의에 절어 지냈다. 자학적인 농담이나 주고받으면서 술집으로 몰려가 실존주의가 어찌네 하며 값싼 술로 울분을 달래는 일이 고작이었다.

2월 15일 미국에서 비보가 날아왔다. 치료차 떠났던 조병옥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미 육군병원 ‘윌터 리드’에서 갑자기 서거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신익희에 이어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니, 민주당 당원들도 그렇지만 국민들도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승만이 또다시 경쟁 후보 없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될 게 확실해졌다.

2월 26일 금요일, 주열은 시험을 하루 앞두고 용산 교통고등학교 예비소집에 가서 수험번호를 받아왔다. 560번이었다. 그는 자취방으로 돌아와 생애 처음으로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는 큰 실수 없이 시험을 치렀다. 막상 시험이 끝나니 초조한 마음이 누그러졌다. 최선을 다한 만큼 떨어지더라도 여한은 없을 것 같았다. 오랜만에 종로 봉수 형네 양복점에 갔더니 하용옹이 들러 갔다

고 알려 주었다. 서울대에 시험을 보러 왔는데 3월 5일 점심때 다시 들를 테니 만나자는 전갈이었다. 그날은 교통고등학교 합격발표를 하는 날이었다.

28일 날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데모를 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경북고등학교 학생 8백여 명이 교문을 뛰쳐나온 것을 필두로 대구고, 경북여고, 경북대 사대부고 학생들이 잇달아 교문을 박차고 나왔다. 일요일인 그날은 대구에서 민주당 선거유세가 계획되어 있던 날이었다. 자유당은 정치에 민감한 고등학생들이 유세장에 나갈 것을 우려하여 학교장들에게 이를 차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일요일인데도 경북고는 학기말 시험, 대구고는 토끼 사냥, 대구상고는 졸업생 송별회, 경북대 사대부고는 임시 수업 등의 명목으로 일요일 등교를 실시하였다.

경북고 학생들은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운동장에 모여 비장한 결의를 보여주었다.

인류 역사 이래 이런 강압적이고 횡포한 처사가 있었는가. 근세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일이 그 어느 역사책 속에 끼어 있었는가.

우리는 배움에 불타는 신성한 각오와 장차 동아(東亞)를 짊어지고 나갈 깨끗한 역군이요, 사회악에 물들지 않은 백합같이 순결한 청춘이요 학도이다.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주열은 가슴이 뭉클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유라는 게 무엇인지 깨닫는 느낌이었다.

서울에서도 민주당의 유세가 뜨거워졌다.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말이 유행어가 되어 있었다. 연일 민주당 선거원들은 외치고 다녔다.

“전례없는 선거부정에 몰두하는 자유당의 악머구리 같은 인간들이 들끓는 북마전이며 금권이 공공연히 난무하는 이번 선거야말로 신성한 국민주권을 강탈하는 강도행위이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은 어떠한 난관에 부딪치더라도 두 눈을 부릅뜨고서 부정선거를 막는 데 앞장 서 주십시오!”

“4년 전 신익희 선생이 가신 것도 서러운데 일전에 조 박사마저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으니 외롭게 싸우는 장면 박사에게 몰표를 몰아줍시다!”

많은 시민들이 호응했다. 그러나 지난번처럼 부통령 선거로 허탈한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다.

합격자 명단에 560번 김주열은 없었다. 3월 5일 일기에 주열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다.

‘교통고등학교에 합격하지 못했다. 나의 모든 노력은 꿈으로 사라졌다’



주열은 실의에 빠져 종로 양복점으로 하용웅을 만나러 갔다. 하용웅도 입시에서 낙방하였다고 했다.

“힘내자. 붙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많은 학교 아니냐?”

언제나처럼 하용웅이 밝게 웃으며 위로했다.

“난 후기대학 시험 준비를 할란다. 주열이 넌 어떻게 할 생각이냐?”

“글쎄, 지금으로서는 막막해. 여기서 다른 학교에 다니기도 힘들 것 같아.”

“너 우리 학교 가라.”

“마산상고?”

“그래. 3등을 한 니 실력이면 장학생으로 갈 수 있을 테니 그 쪽으로 고민을 해봐라. 졸업해서 은행에 취직해도 좋다. 그럼 가세도 일으키고 일하면서 대학시험 준비도 할 수 있겠지.”

마산상고는 우수한 학생 유치를 위해 그해부터 장학생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마산 시내 중학교에서 학년 석차 25등 이내에 드는 학생은 무시험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을 정도였다. 주열은 선배 하용웅의 제안으로 마음을 바꿔 마산상고 진학을 결심했다.

“원서 접수기간이 어떤지 모르겠네. 야, 서둘러야겠다. 잘못하면 원서 접수가 끝났겠다.”

이튿날 두 사람은 부랴부랴 남원으로 내려왔다. 하루를 넘겨서 아침에야 집에 도착하였다. 급하게 입학원서를 써서 하용웅이 담임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광열이 마산으로 출발했다. 입학시험을 보러

가는 그를 위해 어머니 권씨는 쌀 한 가마니를 팔아 5천 원을 만들었다. 권씨는 흰 셔츠도 한 벌 사서 주었다.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고 오라고 사주는 거여.”

이튿날 첫차를 타기 위해서 주열은 남원 큰누나 집으로 갔다. 당시 남원과 마산을 오가는 대한금속 버스는 하루에 두 차례 운행되고 있었다.

돌이 지난 조카 윤경이 부쩍 자라서 예쁜 짓을 많이 했다.

“윤경아, 삼촌 해봐. 삼촌!”

주열이 아이를 안고 볼을 비비느라 내려놓질 않자 큰누나가 눈을 흘기며 말했다.

“그리 이쁘면 니가 데려다가 키워라. 애를 아주 몸살 내내.”

“그라까?”

“니 서울 갖다오더니 부쩍 어른이 된 것 같다. 오랜만에 봐서 그란가 키도 더 큰 것 같고…….”

“누나, 똑바로 서봐. 나랑 키 좀 대보게.”

주열이 큰누나 등 뒤에 섰다.

“애가 왜 이래? 이래봐도 내 키가 백육십이 넘는 키라구.”

“누나! 어찌지, 내가 좀 더 큰데?”

주열이 손바닥을 올려 가늠해보고는 말했다.

“우리 집에서 니하고 나하고 제일 클란다.”

주열은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튿날 주열은 아침 7시 40분발 마산행 버스에 올랐다.



붉은 봄  
김주열 시체 유기 전말

자유당 정권은 마산 2차 의거를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간첩이 개입된 폭동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 마산 2차 의거가 한창인 4월 12일 홍진기 내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산사태에 대한 경위를 밝혔다.

“김주열의 시체가 발견되자 흥분한 군중이 파출소에 투석하고 경찰서에 몰려 들어가 화약고를 파괴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경찰 발포로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철모르는 학생이 주동이 되어 일어난 일이니 다 함께 진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당과 경찰에서는 공산간첩 개입 운운하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마산은 지난 선거에서 조봉암 표가 제일 많이 나왔고 6·25동란 전에는 공산당이 가장 심하게 준동한 곳일 뿐만 아니라 해안에 접해 있어 밀수의 근거가 되어 조총련계의 불온문서가 나돌고 있음을 볼 때 조총련계와 이들 불순세력과의 접촉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10시경에 즉각 북한 괴뢰방송에서 마산 데모 소식을 보도하는 걸 보면 오열(五列: 적국에 대응하는 자)이 개입한 상황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남도지사 신도성은 국회조사단에게 마산 2차 데모는 공산당의 수법과 흡사하다는 증언을 했다. 조인구 치안국장도 공산당이 개입한 모종의 중대정보를 입수했다고 덩달아 떠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3일에 이어 15일에도 또 한 차례 특별담화문을

발표하여 좌익폭동으로 규정하려 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세계에서 제일 앞에서 공산당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싸우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공산당의 선전에 속아나 이런 일을 한다면 가증가탄(可憎可歎)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보고 외국기자들도 말하였지만 공산당이라는 것은 부모도 어른도 아이도 모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자행하며 이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잘하는 줄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AP통신은 한국의 데모는 민주주의의 향상을 염원하는 증거라고 보도했다. 또한 국내 언론도 오열 개입설을 단호히 부정하였다. 각 신문은 사실을 통해 맹렬히 비판했다. 급기야 자유당 마산시당까지 나서서 '김주열 군의 시체유기를 처벌하고 간첩 관여 운운하는 발설을 삼가라'는 요지의 대정부 건의문을 냈다.

3·15 의거에 공산당이 개입되었다는 여론조작이 힘을 얻지 못하자 자유당 정권은 민심수습책의 일환으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을 사임시켰다. 국회에서는 마산사건 특별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마산으로 파견하였다.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월 15일에서 1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회조사단의 현지조사를 통해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고 있던 210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대부분 석방되었으며, 북마산파출소 방화범으로 누명을 쓰

고 구속되었던 세명의 청년도 자유의 몸이 되었다.

국회조사단은 공무원들과 석방된 시민들의 증언을 청취하였다. 검찰에서도 서득룡 지청장의 회유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좌익 폭동이었다는 자유당의 거짓 주장은 힘을 잃게 되었다. 발포 책임자로 지목된 마산경찰서 경비주임 박종표, 남성동파출소 주임 김종복, 수사주임 이종덕, 경사 주희국, 순경 이종한 등 경찰 다섯명은 3월 25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부산형무소에 갇혔다.

박종표는 국회특별위원회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3월 15일 밤의 발포사건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다.

“시청 정문 앞에서 ‘순사를 죽여라’ 하고 고함을 치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돌이 날아오니까 안 쓸 수 없는 입장이었다. 어디까지나 해산시키려고 공포를 쏜 것이다. (무학국민학교 앞의 발포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위협 발사하니깐 그쪽에서 멈추었다가 또 발사를 안 하면 모여들고 해서 일진일퇴해서 나간 것이다.”

또한 그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3월 15일 밤 하오 7시 20분 경 무학국민학교 앞에서 약 3천 명의 학생, 일반시민이 데모를 하면서 투석하는 까닭에 열명의 경관을 지휘, 공포발사를 명했고 최루탄 세 발을 발사했다. 232호 최루탄은 군중을 향해서 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김군이 맞은 것은 발사되어 떨어지면서 눈에 박힌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뒤 조사과정에서 최루탄은 총 열두 발을 쏜 것으로 밝혀졌다.

주열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흘이 지난 4월 18일, 박종표는 담당검사 한옥신 부장검사와 정창훈 검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손석래 서장의 지시에 따라 바다에 던졌다'고 자백하였다.

3월 15일 밤 10시였다. 박종표는 순찰 중인 교통주임으로부터 마산 남전지점 앞에 수류탄이 박힌 시체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법원 앞에서 부하 기동대원들 열 명과 함께 시위대 추적을 끝내고 막 경찰서로 복귀해 있었다.

박종표는 서장실로 달려갔다.

“서장님, 시체 청소를 하던 중 남전 앞에서 수류탄이 눈에 박힌 괴이한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뭘, 수류탄? 우리 애들이 수류탄을 사용했나?”

“아닙니다. 그게 아무래도 최루탄 같습니다.”

손 서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고, 박은 고개를 숙였다.

“자네가 알아서 처리해.”

박은 그 길로 장경식 순경을 대동하고 서장의 지프를 이용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시민들은 없고 쓰러진 부상자와 시체를 치우는 경찰들만 남아 있었다. 그는 손전등으로 시체의 얼굴을 비춰 보았다. 순간 그는 손전등을 얼굴에서 거두었다. 시체가 흉측했던 것이다. 그는 다시 시체의 얼굴로 손전등을 옮겼다. 소년의 눈에 박힌 것은 최루탄



김주열의 시체에 돌을 매달아 바다에 유기한 박종표 경위가 특별수사반에 의해 그날의 상황을 재현하며 현장검증을 받고 있다.

이 분명했다. 그는 장경식 순경과 함께 시체를 가마니에 담아 지프 뒷자리에 싣고 일단 마산서로 되돌아왔다.

“부두로 가자. 어디가 사람들 눈에 제일 안 띄겠나?”

“마산세관 앞이 낫겠는데요.”

장경식 순경이 대답했다.

“그래, 그곳으로 가지.”

그들은 다시 지프를 몰았다.

온 시내가 정전으로 잠들어서 오히려 지프의 불빛이 부담스러웠다. 지프는 월남동 마산세관 앞 부둣가 끝에 바짝 섰고, 바로 전조등이 꺼졌다. 물결 출렁이는 소리만 들릴 뿐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장경식 순경은 심호흡을 하고 나서 지프 뒷자리에서 가마니를 끌어냈다. 그는 부두 끝에 가마니를 대고 물건을 쏟듯 주둥이를 찌렀다. 시커먼 어둠 속으로 ‘퐁당’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경찰서에 돌아와 시체를 수장했다고 보고하자 손 서장은,

“반약 바다에 떠오르면 어떡하나? 차라리 암매장할 것을…….”

하고 후회하는 빛을 보였다.

박종표는 일본 헌병 출신으로 39세였다. 헌병 시절 창씨개명 한 그의 이름은 ‘아라이(新井)’로서 보통 ‘아라이고조(新井伍長)’라 불렸다.

그에게는 많은 죄상이 있었지만 해방 두 달 전에 저지른 ‘정장호 학살사건’은 유명했다. 부산시 초량동 정장호 집에 붉은 가죽장화를

신고 계급장이 없는 일본 군복을 입은 박종표가 대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집에는 친정에 다니러 간 아내 대신 정장호가 어린 세 딸을 데리고 있었다. 딸들은 열 살, 일곱 살, 네 살이었다.

박종표는 다짜고짜 정장호에게 수갑을 채웠다.

“너희 집을 수색해봐야겠다. 8급 라디오가 있지? 당장 헌병대로 가야겠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정장호가 겁에 질려 말하자,

“거짓말 마라!”

하고 그는 가죽장화로 정장호의 아랫배를 걷어찼다. 울어대는 딸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정장호를 끌고 갔다. 그를 장장 닷새 동안 구금하고 고문하여 빈사상태를 만들어 놓았다. 박종표는 그를 헌병대 뒷담으로 끌고 가서 밀다시피 뛰어넘게 하여 탈옥도주로 가장하여 돌려보냈다. 정장호는 대문간에 들어서자마자 피를 토하고 쓰러져 절명하고 말았다.



붉은 봄  
4·19혁명과 제1공화국의 몰락

봄은 꽃 소식에 실려 윗녘으로 올라오건만, 1960년 봄은 죽음의 소식에 실려 왔다. 1·2차 마산의거로 14명이 사망하고, 230여 명이 부상했다.

벚꽃이 번지듯 마산의거의 불길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4월 14일, 인근 진주시와 진양군에서 학생들이 마산시민들의 투쟁에 호응했다. 15일에는 부산동래고 학생 천여 명이 쫓기했다가 좌절되었고, 청주공고생들이 청주역에서 일어났다. 17일에는 진주, 창녕, 하동 등지에서 민주당 당원들의 데모가 연이어 터졌다. 18일을 고비로 시위 양상이 거대한 규모로 확산되었다. 부산에서는 동래고, 경남공고, 부산공고, 향도고 학생들이 데모를 벌였고, 청주에서는 청주고, 청주상고, 청주여고 학생들이 쫓기하여 30여 명이 부상당하는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항쟁의 불길은 전국 곳곳을 누비며 마침내 서울의 대학에까지 상륙했다. 첫 진원지는 안암동 고려대였다.

친애하는 고대 학생 제군!

한마디로 대학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 이제 질식할 듯한 기성 독재의 최후적 발악은 바야흐로 전체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기에 역사의 생생한 증언자적 사명을 띤 우리들 청년학도는 이 이상을 역류하는 피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은 극단의 악덕과 패륜을 포용하고 있는 이 탁류의 역사를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세의 영원한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 말할 나위



도 없이 학생이 상아탑에 안주치 못하고 대사회 투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오늘의 20대는 확실히 불행한 세대이다. 그러나 동족의 피를 뽑고 있는 이 현실을 방관하라.

존경하는 고대 학생 계군!

우리 고대는 과거 일제 하에서는 항일투쟁의 총본산이었으며 해방 후에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사수하기 위하여 멸공전선의 전위적 대열에 섰으나 오늘은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를 위한 반항의 봉화를 높이 들어야 하겠다.

고대 학생동지 계군!

우리 청년학도만이 진정한 민주역사 창조의 역군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총궐기하라.

## 구 호

- 기성세대는 자성하라!
- 마산사건의 책임자를 즉시 처단하라!
- 우리는 행동성 없는 지식인을 배제한다!
- 경찰의 학원출입을 엄금하라!
- 오늘의 평화적 시위를 방해하지 마라!

18일 오후 1시, 선언문 낭독을 마친 3천여 명의 고대생들은 스크립을 짜고 '민주역적 몰아내자!', '자유·정의·진리를 드높이자!' 라고

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태평로 국회의사당을 향해 나아갔다. 이에 맞서 경찰은 안암동 로터리와 대광고등학교 앞에서 강력한 진압작전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학생 90여 명이 연행되고 대열은 뿔뿔이 흩어졌다. 골목길을 통해 삼삼오오 빠져나간 학생 천여 명이 이날 오후 2시 30분에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했다.

오후 4시, 유진오 고대총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 해산을 종용했으나 학생들은 학교 앞에서 연행된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오후 6시, 동료학생들이 석방되자 학생들은 농성을 풀고 대열을 학교로 돌렸다.

사태는 돌아가는 길에서 터졌다. 데모대열이 종로 4가 천일백화점 앞에 이르렀을 때 골목에서 백여 명의 괴한이 쇠파시, 몽둥이, 벽돌로 무장하고 뛰어나와 학생들을 무차별로 공격했다. 이들의 폭력에 학생 2백 명이 피투성이로 쓰러졌다. 20여 명의 학생들을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고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와 해산했다. 이날 고대생을 습격한 괴한들은 경무대 경호책임자 곽영주와 임화수의 지휘를 받은 반공청년단, 종로구단, 동대문 특별단부 소속의 조직폭력배들이었다.

한편 부산에서는 동래고 학생들이 궐기하였다.

전국의 학도여 눈을 뜨라.

그대들 가슴에 진정한 선혈의 피가 흐를진대  
눈에 최루탄이 박혀 참살당한

내 형제가 대낮에 표류하는  
마산을 생각하라.

그리고 4월 19일이 밝았다. 조간신문 1면마다 고대생 시위 피습사건으로 도배되자 시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더구나 동아일보에 실린 '고대생 1명이 피살'이라는 오보 기사는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었다.

“이럴 수가! 이젠 깡패까지 동원해서 데모대를 습격하다니…….”

오전 9시 경, 동숭동 서울대 문리대 게시판에 총궐기하자는 격문이 나붙었다. 이 시간 대광고 학생들 천여 명이 종로 5가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 저지에 막혀 방향을 틀어 동숭동으로 오고 있었다. 고등학생들의 함성소리가 들리자 문리대 학생들이 기다렸다는 듯 우르르 마로니에 공원으로 몰려 나갔다. 3천여 명에 이르는 서울대 데모대는 투석전을 벌이며 국회의사당을 향해 돌진했다. 동성고, 고려대,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교문을 나섰다. 동국대 학생들은 의사당 앞에서 ‘동국대는 경무대로 가자!’고 외치며 경무대로 향했다.

“이승만 물러가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세종로에는 이런 구호가 처음으로 등장해 물결쳤다. 정오를 넘기면서 연세대, 홍익대 학생들이 교문을 나섰고, 중앙대 학생들이 한강

대교를 건넜다. 이어서 경기대, 외국어대, 단국대, 국학대, 국민대, 서라벌예술대, 숙명여대, 이화여대도 데모 대열에 속속 합류했다.

서울 사방에서 쫓겨난 학생들이 도심에 향해 진입해 왔다. 경찰의 저지선은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경찰 수뇌부는 대통령이 있는 경무대만이라도 사수하기 위해 병력을 효자동 방면으로 집결시켰다.

오후 1시 경,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데모에 참여할 것을 우려하여 오전수업을 마치고 서둘러 하교를 시켰다. 그러나 강문고, 경기고, 경성전기공고 전교생이 데모대에 합류했다. 서울 전역의 데모군중이 10만을 넘고 있었다.

오후 1시 30분, 데모대 선두가 경무대 근처 최후의 저지선 앞까지 진출하였다. 저지용으로 세워둔 소방차 세 대에 학생들이 올라탔다. 그 중 한 대를 탄 학생이 경무대 오르는 언덕길로 천천히 몰아갔다. 천여 명의 학생이 소방차 뒤를 바짝 따랐다. 경찰은 언덕길 중간지점에 최후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10분 후 소방차를 앞세운 데모대와 경찰 간격이 10여 미터로 좁혀졌을 때 경찰이 일제히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삼시간에 경무대 어귀는 시체 7, 8구가 나뒹굴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의 무차별 공격에 후퇴한 데모대는 대열을 정비하고 다시 경무대로 올라갔다. 경찰은 종전처럼 다시 총격을 가했다. 동성고 학생들이 몰려왔고, 다음은 연세대 학생들이 몰려왔다. 경찰의 총격은 계속되었다. 21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부상했다. 경무대를 향한 죽음의

행진은 오후 5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2시 50분, 중앙청 옆 경찰 무기고 앞에서 경찰이 무차별 사격을 감행하여 8명이 숨졌다.

오후 3시, 정부는 서울 일원에 경비계엄을 선포하고 육군참모총장 송요찬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이후 서울신문사가 전소되고, 반공청년단의 사무실이 있는 반공회관도 불에 탔다.

오후 4시 30분, 정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도 경비계엄을 확대 선포하였고 오후 5시에는 경비계엄을 비상계엄으로 바꾸고 통금시간 연장 조치를 취했다.

오후 5시를 기해 경찰은 흩어진 병력을 경무대 앞에 집결시키고 장갑차 두 대를 앞세우고 중앙청 앞에서부터 사격을 가해 일제 소탕작전을 펼쳤다. 경무대 앞에서 후퇴한 데모대는 중앙청 앞과 세종로를 완전 장악하였다. 연도의 시민들이 속속 데모대에 뛰어들었다. 데모대는 삼시간에 20만 명으로 불어났다. 을지로 입구 내무부에서 데모대 7명이 숨졌다.

일부 데모대는 경찰로부터 탈취한 무기로 무장하고 40여 대의 차량에 분승하여 시내를 돌아다니며 연도의 파출소를 방화하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밤 10시 경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진주하자 무장데모대는 뿔뿔이 흩어졌다. 계엄군은 데모대 가운데 30명을 연행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귀가시켰다.

4·19 이후 숨 가쁘게 움직이던 정국은 이승만이 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이기붕이 공직 사퇴를 하자 그런대로 해결의 기미를 보이는 듯했다. 그러던 4월 25일 오후, 3백여 명에 가까운 대학교수들이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데모를 결행하였다. 교수단의 데모는 자유당 정권에 치명타를 입혔다.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정각, 라디오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였다.

-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 3·15 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런 것을 없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붕 의장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대통령 하야 성명을 들은 시민들은 세종로 네거리를 비롯한 도심지 곳곳에서 열광적인 환호와 만세를 불렀다. 국민은 드디어 승리하였다. 1948년 해방과 더불어 수립된 제1공화국은 만 11년 8개월 12일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붉은 봄  
그리고 그 뒷이야기

3·15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지휘한 내무부 장관 최인규는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후일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기붕은 일가족 자살이라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다.

마산에서의 부정선거를 총지휘한 이용범은 5·16 군사 쿠데타 후 부정축재 사범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대부분의 재산을 몰수당했다. 그는 끝까지 정치인으로서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재기를 꿈꾸다가 생을 마감하였다. 허윤수는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이승만 하야 후 7·29 총선에 출마를 시도하다가 주위의 만류로 포기했다. 그리고 박종표는 1962년 4월 7일 특별재판소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거듭하였고, 두 차례의 사면을 통해 각각 15년, 7년의 감형을 받고 복역했다. 김종복, 이종덕은 징역 7년, 주희국, 이종한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들도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사면을 받았다.

김주열의 49재가 양력 5월 3일 초파일에 남원산성 대복사에서 있었다. 많은 남원 시민들과 기관장들이 참석해 민주혁명의 제단에 바친 어린 영혼을 떠나보냈다. 참석자들이 하도 슬퍼해서 권찬주 여사는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다. 자신이 통곡하면 그 사람들이 눈물을 터뜨릴까 두려웠다.

“이기붕도 죽었으니 이제 내 원한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백 명의 원수를 죽인들 죽은 자식이 살아나겠습니까. 어미 자식간의 정으로 그리운 마음 어찌 다 말하리요마는 나라 일을 잘 보라고 길러서 나라

일로 죽었으니 이제 제 임무는 살아남은 자식을 잘 키워 더욱 나라 일을 보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루 속히 선거나 다시 해서 나라가 바로 되길 바랄 뿐입니다.”

밤새 진행된 탐돌이 축원에는 민주당 당원 6명도 가족과 함께 했다. 권씨는 마산의 시민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띄웠다.

**마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 나라 어머니 여러분!**

자식 주열이가 죽은 지 한 달이나 걱정해주신 끝에 4월 11일 다시 마산에서 의거를 일으켜 나라를 바로 서게 해주신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자식 하나 바쳐서 민주주의를 찾는 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남은 삼형제 다 바친들 아까울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록한 뜻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몸 건강하시길 5백리 서쪽 지리산 고개 너머에서 늘 빌겠습니다.

고려대에 다니는 조카 김수철은 어머니 권씨를 위로했다. 그는 4·19 데모 후 모진 고문으로 고향 남원으로 내려와 요양하고 있었다.

“할머니, 주열의 죽음을 원통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 죽음이라면 나도 당장 죽겠소.”

그해 어린이날 새싹회에서는 ‘어진 아들 뒤에는 어진 어머니가 있다’고 하여 네 번째 소파상을 권찬주 어머니에게 수여하였다.

그해 6월 4일 마산상고 교정에서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부



4·19묘지 앞의 권찬주 여사

산문화방송 라디오에서는 현지녹음을 하였는데 권씨도 인터뷰에 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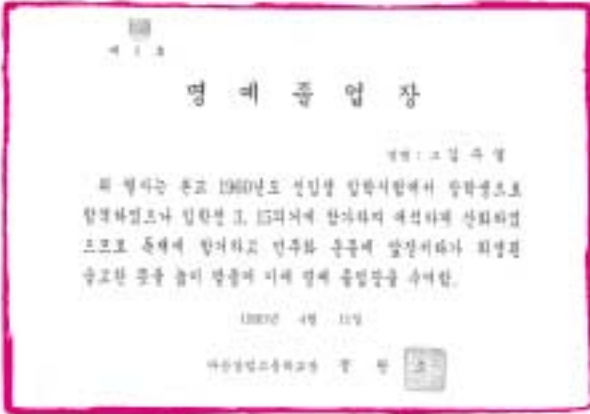
아나운서 : 김주열 군의 죽음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소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친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지금 심경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머니 : 휴,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앞뒤가 짝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에 와서는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찾고 우리 정권을 찾았으니까 그 이상 더 좋고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주열이를 그토록 섬겼던 학생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니 차라리 내 자식의 죽음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요. 제가 이렇게 가정에 얽매이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어서 서울에 올라가 유가족들에게 조문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모들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제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장면 박사와 김창숙 선생 등 여러 인사들이 어머니를 초청하여 소원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빈곤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관을 설립하여 주시면 남은 여생을 그 불쌍한 학생들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뜻에 따라 장학관 건립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5·16쿠데



마산상고에서 있었던 3·15의거 1주년 추도제

타가 일어나 그만 중단되고 말았다.

아버지 김재계는 아들을 잃은 실의에 더 병이 악화되어 주열을 앞세운 지 5년 만인 1965년 여름 65세의 일기로 사망하였다.

이태 후 온 가족이 남원을 떠나 서울 서대문에 집을 마련하여 하숙을 치며 살았다. 형 광열은 동국대를 졸업하여 보험회사에 다니다가 1984년 4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 권찬주는 1989년 여름 향년 67세로 사망하여 주열이 묻힌 남원 우비산으로 돌아왔다.

김주열 기념관



남원 우비산의 김주열 묘, 뒤편에 부모님의 묘가 있다.





# 부록

마산 3·15의거 열사들

선언문

추모시

**김삼웅(당 19세)**



1942년 함안 출생. 함안 가야국민학교, 창신중학교를 졸업하였다. 3월 15일 밤 북마산파출소 부근에서 좌측 복부 관통 총상을 입고 숨졌다. 숨지기 전 어머니에게 내 할 짓을 하고 죽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김영길(당 18세)**



1943년 마산 출생. 김용이 씨의 5남매 중 외아들로 마산 함포국민학교, 창신중학교를 졸업한 후, 향도철공소에서 직공으로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렸다. 장차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4월 11일 2차 항쟁 때 권총을 맞고 인근 덕수병원으로 옮겨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

**김영준(당 20세)**



1941년 신의주 출생. 주경옥 씨의 두 아들 중 차남으로 1960년 3월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3월 15일 밤 시청 부근에서 좌측 둔부에서 우측 하복부의 관통 총상을 당해 도립 마산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

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찾았다.

**김영호(당 19세)**



1942년 창녕 출생. 김위술 씨의 4남 1녀 중 차남으로 마산 무학국민학교, 마산중학교를 거쳐 마산공고 야간부 2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활달한 성격에 바둑을 잘 두었고, 경제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3월 15일 밤 마산시청 부근에서 오른쪽 귀 아래 관통 총상을 입고 숨졌다.

**김용실(당 18세)**



1943년 창원 출생. 김기우 씨의 3남 5녀 중 장남으로, 마산 성호국민학교, 마산중학교를 거쳐 당시 마산고등학교 1학년 B반 반장이었다. 기독교 신자였으며 야구, 등산을 좋아하는 활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3월 15일 밤 북마산파출소 앞에서 머리 관통 총상을 입고 도립마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숨졌다.

### 김종술(당 17세)



1944년 마산 출생. 삼형제의 막내로 마산동중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자라면서 외가에 많이 의지하여 살았으며 사업가가 되는 것이 장래 희망이었다. 4월 26일 부산에서 온 원정대와 함께 시위하다 부상당해 치료를 받다 숨졌다.

### 김평도(당 39세)



1922년 거창 출생. 부인 옥채금 씨와의 사이에 외동딸을 두고 부림시장에서 메리야스 판매상을 하고 있었다. 평소 인정이 많고 의협심이 강했다. 4월 26일 부산에서 온 원정대와 함께 시위하다 숨졌다. 3·15의거 당시 유일한 성인 희생자였다.

### 김효덕 (당 19세)



1942년 마산 출생. 김종룡 씨의 2대 독자로서 1958년 마산 마포중학교를 졸업한 후 공장 직공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온순한 성격으로 많은 친구들의 신뢰를 받았다. 3월 15일 밤 좌측 머리 관통 총상을 입고 시청 부근에서 숨졌다.

### 오성원(당 20세)



1941년 창원 출생. 해방 무렵에 조실부모하고 고아가 되어 숙부에게 의지하여 국민학교를 졸업한 뒤 잡화행상과 구두닦이를 하며 어렵게 살았다. 3월 15일 밤 시민극장 부근에서 우측 가슴 관통 총상을 입고 숨졌다.

### 전의규(당 18세)



1943년 창원 출생. 전소조 씨의 2남 3녀 중 장남으로 상남국민학교, 창신중학교를 졸업하였다. 동물을 좋아하고 운동도 잘하는 활달한 소년이었다. 3월 15일 밤 북마산파출소 부근에서 귀 윗부분 관통 총상을 입고 숨졌다.

### 조현대(당 21세)



1940년 생. 박연순 씨의 3형제 중 차남으로 3월 15일 밤 북마산파출소 앞에서 가슴에 총탄을 맞고 황외과에 입원 치료 후 퇴원했으나 얼마 후 재발하였다. 집이 몹시도 가난하여 변변한 치료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숨졌다.

상아(象牙)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理性)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薄土)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오늘 우리는 자신들의 지성과 양심의 엄숙한 명령으로 하여 사악(邪惡)과 잔학의 현상을 규탄 광정(匡正)하려는 주체적 판단과 사명감의 발로임을 뚜렷이 선명(宣明)하는 바이다.

우리의 지성은 암담한 이 거리의 현상이 민주와 자유를 위장한 전체주의의 표독한 전횡(專橫)에 기인한 것임을 단정한다.

무릇 모든 민주주의의 정치사(政治史)는 자유의 투쟁사다. 그것은 또한 여하한 형태의 전제로 민중 앞에 군림하든 종이로 만든 호랑이 같이 헤설픈 것임을 가르쳐준다.

한국의 일천한 대학사(大學史)가 적색(赤色) 전제에의 과감한 투쟁에 거획(巨劃)을 장(掌)하고 있는 데 크나큰 자부를 느끼는 것과 똑같은 논리의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위장한 백색(白色) 전제에의 항의를 가장 높은 영광으로 우리는 자부한다.

4·19 당시 서울대 문리대에서 발표한 선언문으로, 당시 최고의 선언문으로 일컬어졌다.

근대적 민주주의의 기간(基幹)은 자유다.

우리에게서 자유는 상실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니 송두리째 박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성의 혜안으로 직시한다.

이제 막 자유의 전장(戰場)엔 불이 붙기 시작했다. 정당히 가져야 할 권리를 탈환하기 위한 자유의 투쟁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 자유의 전역(戰域)은 바야흐로 풍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중의 공복이며 중립적 권력체인 관료와 경찰은 민주를 위장한 가부장적 전제 권력의 하수인으로 발 벗었다. 민주주의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되었다.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사상의 자유의 불빛은 무식한 전제 권력의 악랄한 발악으로 하여 깜박이던 빛조차 사라졌다. 긴 칠흑 같은 밤의 계속이다.

나이 어린 학생 김주열의 참시(慘屍)를 보라. 그것은 가식 없는 전체주의 전횡(專橫)의 발가벗은 나상(裸像)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을 보라. 비굴하게도 위하(威嚇)와 폭력으로써 우리들을 대하

## 오빠와 언니는 왜 총에 맞았나요?

강명희(서울 수송국민학교 4학년)

려 한다. 우리는 백보를 양보하고라도 인간적으로 부르짖어야 할 같은 학창의 양심을 느낀다.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打手)의 일익(一翼)임을 자랑한다. 일제의 철퇴 하에 미칠 듯 자유를 환호한 나의 아버지 형제들과 같이—

양심은 부끄럽지 않다. 외롭지 않다. 영원한 민주주의의 사수파(死守派)는 영광스럽기만 하다.

보라, 현실의 뒷골목에서 용기 없는 자학을 되짚는 자까지 우리의 대열을 따른다.

나가자, 자유의 비밀은 용기일 뿐이다.

우리의 대열은 이성과 양심과 평화 그리고 자유에의 열렬한 사랑의 대열이다. 모든 법은 우리를 보장한다.

아! 슬퍼요.

아침 하늘이 밝아오며는

달음박질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노을이 사라질 때면

탕, 탕, 탕, 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노을을

오빠와 언니는 피로 물들였어요.

오빠와 언니들은

책가방을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강도질을 했나요.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점심도 안 먹고

## 다시 바다

이제하(시인)

저녁도 안 먹고  
말없이 쓰러졌나요.  
자꾸만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그리고 25일과 26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안 해도  
오빠와 언니들 왜 피를 흘렸는지를.  
오빠와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서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1960년)

갈 수 없구나 청산가리 극약  
폼에 폼지 않고서는  
프로펠러 달린 최루탄  
눈에 콧지 않고서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김주열이 헤엄치는  
저기 저  
바다  
부르짖던 사람들  
산비탈로 쫓겨 올라가고  
텅 빈 햇볕 드는  
텅 빈 바라크

솔뚜껑 만한 화종(火鐘)  
한 손에 쥐고

명하니 바라보는

저기 저

바다

(『저 어둠 속 등빛들이 느끼듯이』중에서, 1975. 5. 10)

## 우리는 오늘 그대 곁으로 간다

이선관(시인)

우리는 오늘 그대 곁으로 간다

너무도 싱싱하고 화창한 이른 봄날

일찍이 열사의 반열에 당당하게 올라 있는

김주열 열사

그대가 태어나 자라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꽃망울을 터뜨리지 못하고 현대사에

한 획으로 기록된 그대가 잠든

남원시 금지면 웅정리 금정마을 우비산 기슭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 우리는 분명 떠나보내지 않았지만

힘있는 그 누군가에 의해 그대의 그 처참한 시신을

무엇이 급해 똥줄이 탔는지 누가 볼세라 누가 알세라

칠혹 같은 야음을 틈타 국립요양소 소속

엠블린스에 짐짝 취급하듯 제대로 염도 하지

얇은 채로 실고 간 후 얼마 만인가

실로 삼십구년 만에 우리는 그대 보러

남원으로 달려간다

지난날 돌이켜보건데

우리들은 숨 죽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말을 할 수도 그림을 그릴 수도 노래를 부를 수도

과연 이 말을 이 그림을 이 노래를

하여도 그러도 불리도 괜찮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세월이 흘러갔구나

부끄럽구나 민망하구나 죄송하구나

그대의 맑디 맑은 혼과 용광로보다 뜨거운 불

그 거룩한 혼불을 우리가 사는

따뜻한 남쪽 고장에 두고

그대의 시신만이 안장된 곳으로

그리하여 죽음의 안개를 뚫고 살아 있음의

순수함이여 순수함의 분노여

그대의 혼불은 그래서 제이의 삼일오가 되고

## 주열이는 살아 있다

복효근(시인)

사일구의 기폭제가 된 것을  
오, 민주주의여  
우리는 오늘 마침내 그대 곁으로 간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경계선으로 한  
파랑재란 고개를 넘어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강대국들이 갈라놓은 남북이 아니라  
정당성을 들라 하면  
그대가 잠든 무덤 앞에 놓아드릴 선물 하나  
옛날 옛적 마한 진한 가락국부터  
우리 어머니들이 직조한 삼베 한 필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씨줄과 날줄  
면면히 이어져 온 그 씨줄과 날줄로 직조된 삼베 한 필  
받으소서 그리고 고이 잠드소서

(시집 『우리는 오늘 그대 곁으로 간다』 중에서, 2000년)

주열이는 죽지 않았다  
누가 무덤 속의 주열이를 말하는가  
누가 1960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이를 주열이라 말하는가  
우리는 기억한다  
온몸이 도화선이 되어 군사독재의 어둠을 불태우고  
6·29 항복을 받아낸  
박종철이라는 이름의 주열이를  
우린 분명 보았다  
1987년 6월 9일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 대회'  
연세대 정문 앞에서 칠혹과 같은  
전두환 군사독재의 어둠에 불을 당기고 있는  
이한열이라는 이름의 주열이를 보았다.  
누가 주열이의 죽음을 말하는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죽은 미선이 효순이를 살려내라고  
불평등한 소파를 개정하려고  
미대사관 앞에서 종로 네거리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거리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어둠을 불사르고 있는  
수천수만의 주열이가 있는데  
누가 주열이를 죽었다고 말하는가  
아득한 옛날  
정의와 광명을 사랑하는  
어둠과 부정과 부패를 한 치도 용납하지 않는 그 어떤 주열이가  
저 2·8 독립선언에 건네준 불꽃을  
다시 3·1 독립운동에 건네주고 또  
11·3 광주학생운동에 신의주학생운동에 건네준 그 불꽃을  
주열이가 받아와 4·19에 불 당기고  
5·18 광주에 건네주고 이어주고 건네주어서  
역사의 어두운 굽이를 불태웠던 그 불꽃이  
오늘 금지중학교 어린이 이 학생들의 가슴속에도  
환하게 타오르는데

누가 주열이의 죽음을 말하는가  
우리가 누리는 이 광명과 자유가  
주열이가 나누어준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열이의 죽음을 말하지 말라  
주열이는 살아 있다.

(김주열 열사 제향제 추모시, 2003. 3. 14)